

1-17-2015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 방안: 삼송중앙교회를 중심으로

Chul Hi Lee 이철희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철희,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 방안: 삼송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플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PASTORAL STRATEGY FOR BUILDING UP A HEALTHY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AMSONG JUNGANG CHURCH

written by

CHUL HI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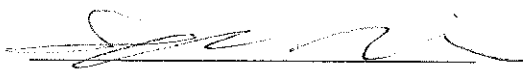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yung Kook Oh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January 17, 2015

**AN EFFECTIVE PASTORAL STRATEGY FOR
BUILDING UP A HEALTHY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AMSONG JUNGANG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UL HI LEE

JANUARY 2015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 방안
- 삼송중앙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오 형 국 교수

이 철 희

2015년 1월

Abstract

An Effective Pastoral Strategy for Building Up a Healthy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amsong Jungang Church

Chul Hi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most serious issue facing the Korean church today is its loss credibility in society. I argue that first the church has to recover its health as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n it will not only regain its credibility but also become salt and light i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n effective pastoral strategy for Korean churches to become healthier Christian communities.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After the first chapter introducing the questions,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chapter 2 explores biblical meanings, purposes, and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It then explains what the healthy church is and has to do as the people of God, the body of Christ, and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y church described in the previous chapter, chapter 3 diagnoses the problems of the Korean church, which it demonstrates to be caused by influences of Confucianism, Shamanism, and secularization. It then argues that the Korean church must have sound pastoral theology, balanced theology of the laity, and good biblical education in order to become a healthy Christian community.

Chapter 4 describes the history, background, and current state of the Samsongjungang Church. It also discusses the church's prospects for the future. Chapter 5 presents an effective pastoral strategy for transforming the Samsongjungang Church into a healthy Christian community based on the findings described in previous chapters. The strategy emphasizes the pastoral philosophy,

pastoral strategy, self-management for pastors, faith centered on the Word of God, inspiring worship, Christian education for the future generation, small group meetings, and other issues for lay people such as obeying God's commandments.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and providing direction for further study.

Theological Mentors: Hyung Kook Oh,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맡겨 주시고 목회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4년간 목회현장에서 고민했던 건강한 교회에 대해 성찰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무사히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며, 힘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친절히 지도해 주시고, 논문의 완성을 위해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인 오형국 교수님과 여러 차례 고비 가운데서도 친절함 도움으로 격려해 주신 홀러 박사원의 김태석 목사님, 저의 목회의 멘토이자, 스승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시고, 목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홍성철 교수님, 부목사 시절에 사역의 많은 기회를 열어주신 이준성 목사님, 박사 과정에 필요한 학비를 몇 차례 익명으로 도움을 주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논문의 완성까지 기도와 목회적인 지원으로 힘이 되어 주신 김광선 원로목사님과 동역자인 민문화 전도사님, 한진섭 전도사님, 노시현 전도사님, 부족한 목회에도 사랑과 협력으로 동역해 주시는 이홍석 명예장로님, 손창현 장로님, 이명운 장로님, 변함없이 날마다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동역자로 함께 해주시는 삼송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면서, 논문 과정에서 격려와 사랑으로 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유희정과 사랑하는 딸 예나,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부모님과 누이들, 동생들, 연약한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을 이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이철희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4
제 2 장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	6
제 1 절 교회란 무엇인가	6
1. 교회의 의미	6
2. 교회의 본질	8
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8
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10
다. 성령의 전인 공동체	13
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	15
제 2 절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16
1.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	17
2. 공동체성을 지닌 연합된 교회	20
3. 초대 교회를 본받는 교회	24
제 3 장 건강한 교회로서의 한국 교회의 진단	28
제 1 절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8
1. 유교의 부정적인 영향	28
2. 무교(巫敎)의 영향	32
3. 세속화의 영향	36
제 2 절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40
1. 목회자의 올바른 목회 철학 정립	40
2. 평신도 신학의 정립	44

3. 건강한 성경 교육의 실천	47
제 4 장 삼송중앙교회의 역사와 현황	53
제 1 절 삼송중앙교회의 역사	53
1. 교회의 개척과 시련기	53
2. 교회의 발전과 시련기	54
3. 교회의 전환과 부흥기	56
4. 건강한 교회로 본 삼송중앙교회 진단	58
제 2 절 삼송중앙교회의 현황	59
1. 삼송중앙교회의 지리적 상황	59
2. 삼송중앙교회의 이전 과정	61
3. 삼송중앙교회의 이전 후 변화	63
4. 삼송중앙교회의 목회 비전과 사역	66
제 5 장 건강한 삼송중앙교회를 위한 목회 방안	69
제 1 절 건강한 목회자를 위한 방안	69
1. 올바른 목회 철학과 비전 세우기	69
2. 목회 전략 세우기	71
3. 목회자의 자기 관리	73
가. 기도	73
나. 성경읽기	74
다. 상담	75
라. 목회자의 체크리스트	76
제 2 절 건강한 평신도를 위한 방안	77
1.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한 영성 함양	77
가. 성경읽기 사역	80
나. 설교 사역	83
2. 영감 있는 예배	86

가. 예배의 갱신	86
나. 예배의 구성	87
3.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91
가. 기독교 교육의 과정	92
나. 기독교 교육의 목표	94
다. 기독교 교육의 내용	95
4. 소그룹 활성화와 사랑의 이중계명 실천	97
가. 구역 소그룹의 활성화	97
나. 섬김 소그룹의 사랑의 이중계명 실천	100
제 6 장 결론	104
부록	108
참고문헌	115
Vita	119

표 목 차

<표 1> 고양삼송지구 사업 개요	60
<표 2> 삼송중앙교회 연령별 교인 분포	64
<표 3> 창릉동, 신도동 주민 연령별 분포	65
<표 4> 성경읽기 자가 진단지	78
<표 5> 60/120일 성경 읽기 점검표	82

그림 목차

<그림 1> 교양삼송지구 위치도	60
<그림 2> 삼송중앙교회 위치도	6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2009년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기관’에 대해 가톨릭 38.9퍼센트, 불교 23.1퍼센트, 개신교 10.8퍼센트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도 불교 28.6퍼센트, 가톨릭 35퍼센트, 개신교 14.2퍼센트의 순으로 개신교는 최하위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05년에 인구주택 총 조사와 함께 종교 인구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과 비교하여 불 때 개신교는 -1.6퍼센트 감소, 불교는 3.9퍼센트 증가, 가톨릭은 무려 74퍼센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¹⁾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 둔화와 쇠퇴를 통해 나타난 선교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의 감소,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의 약화, 기복 신앙의 폐해, 여가 생활의 증가 등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학적 원인보다는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심하게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다. 이에 대해 세문안교회 담임목사인 이수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뭐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나 하면 먼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

1)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09), 19-23.

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식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것인데 인간과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자신이 인간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다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선택하는데 그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삶의 의미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방식이 바뀌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도 안 바뀌고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목표만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사업이 잘되고 돈이 잘 벌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 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건강해야 한국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²⁾

본 연구자는 이러한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자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결과이다. 한국 갤럽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종교를 믿는 이유”에 관한 조사에서 기독교인 응답자의 55.5퍼센트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5.5퍼센트는 “복을 받기 위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라고 응답한 사람은 25퍼센트로 나타났다.³⁾ 이런 결과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현세주의에 치우쳐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교회는 신학적, 정치적 원인 등으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바로 한국 교회라 할 수 있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총장인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은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는 삶에 대해 고민하다 교회로 돌아온 청년이었다.

그(청년)가 말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군요. 저 같은 사람이야 이 동네에서도 술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을 또 찾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가면 정말 예수

2)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 이수영, “성도의 삶이 건강해야 한국교회가 건강합니다,” 인터뷰 인용.

3) <http://blog.naver.com/dace98/60137302818> 서재생, “불교와 기독교인의 종교의식과 통계 자료” 인용.

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청년이 찾고자 했던 예수님 같은 교회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즉,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말이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것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존재감 없고, 좋은 소식을 전해 줄 것이 없는 교회를 벗어나야 한다. 한 마디로 건강한 교회의 회복이다. 솔직히 말해서 본 연구자는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랑하던 몇몇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험을 하면서 큰 좌절과 슬픔을 경험했다. 동시에 많은 기쁨과 감사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미스럽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보다 새로 교회에 온 신자들의 수가 훨씬 많았다. 몇 해만 보더라도 본 연구자가 섬기는 삼송중앙교회는 참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건강해 보인다. ‘한 사람’의 가치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 왔다. 그럴수록 변화되고 성장하는 신자들이 늘어갔다. 처음 삼송중앙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런 변화를 의도하지도 않았고,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목회자로 내가 할 일을 해 왔을 뿐이다. 어느덧 담임목회 6년 차를 보내면서 본 연구자가 책임지고 섬기는 신자들을 둘러보면서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정립이 필요함을 느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건강한 교회인가? 이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찾아, 남은 목회 여정을 달려가야 하겠다는 절실함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자가 섬기는 삼송중앙교회는 경기도 고양시의 삼송 신도시라는 특수한 지역의 중심에 서 있다. 여기에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지역은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입고 삼송중앙교회는 건강한 성장의 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45년이라는 역사와 함께 달려온 삼송중앙교회는 그리 순탄한 시간들을 보내오지는 못했다. 여기에 2009년 9월에 목회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화합, 기존의 신자들과 새로 들어올 신자들 간의 연합을 위한 공동체성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교회 안으로는 공동체성이 회복하고, 교회 밖으로는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는 가장 우선하는 목회자의 당면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4) Mark Labberton, *제일 소명*,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37-38.

라야 쓸 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의 사역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도 교회 역시 건강하게 자라야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되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반대로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삼송중앙교회의 역사와 현황을 돌아보며 진단해 보고, 건강한 삼송중앙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목회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회론을 총망라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삼송신도시 내에서 삼송중앙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앞으로도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모델로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건강한 교회의 모든 것을 다룬 논문이 아니다. 단지 45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 교회인 삼송중앙교회가 삼송 신도시라는 지역 안에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고 정착시키며, 성숙한 신자들로 건강하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건강한 교회론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건강한 교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삼송중앙교회를 중심으로, 그 연구 범위를 갖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로서,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본질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여기서 교회는 공동체적인 의미와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본 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의 삼위일체론적 특징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포함하여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이 반영된 건강한 교회의 특징으로서 사랑의 이중 계명, 공동체성, 복음이라는 요

소를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상을 살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근거로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보면서, 먼저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유교, 무교, 세속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 평신도 신학, 건전한 성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삼송중앙교회의 지나간 45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앞서 살펴 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근거로 삼송중앙교회를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삼송 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삼송중앙교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삼송중앙교회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3장에서 언급한 건강한 교회의 필수적 요소들과 4장에서 진단된 내용들을 근거하여, 건강한 삼송중앙교회를 위한 목회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목회자의 방안으로는 목회 철학, 목회 전략, 자기 관리 등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평신도의 방안으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 영감 있는 예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소그룹 활성화와 사랑의 이중 계명 실천 등을 살펴보면서 현재와 미래 전략을 조명해 볼 것이다. 6장은 결론으로, 앞에서 논의한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효과적인 목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할 내용을 제안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제 2 장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 방안'을 수립하기에 앞서,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나아가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교회란 무엇인가

독일의 신학자 한스 쾅(Hans Küng)은 교회에 관한 잘못된 두 가지 이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서 있는 역사성을 무시하고, 너무 이상화하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신적 관계를 무시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점을 들고 있다.⁵⁾ 그가 주장하는 대로 교회 안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존재하며,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신앙인의 관점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살펴봄에 있어, 두 가지 차원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단어 및 성경적 의미를 찾아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삼위일체론적인 이해 속에서 다루어 봄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교회의 의미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의 70인역에서는 '카할'(קהל)과 '에다'((עדה)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카할'은 어떤 '실제적인 모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용어이다.⁶⁾ 즉, '의논하기 위해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으로

5)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33-40.

백성들이 실제로 모인 집회를 말한다. 다시 말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 모인 모임이 '카할'이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는 백성들의 집회이다.⁷⁾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의식적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다'는 지정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관련된 용어로,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모인 사람들 즉, '회중'으로 번역된다. 70인역에서 '카할'은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에다'는 '쉬나고게'(συναγωγή)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신약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모임이나 공적 예배를 위해 모였던 건물들을 나타내는 '회당'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⁸⁾

원래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 도시 국가의 시민들의 집합체를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지칭하여 '불러내어 모인 하나님의 집합체'라는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⁹⁾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정리하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이다.¹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다(고전 1:2).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의지하며,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다. 즉,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며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의 교제 속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¹¹⁾ 요약하

6) '카할'(קהל)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 특별히,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모임을 의미하며(신 9:10; 10:4), 또한 조직체로서의 회중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신 31:30; 민 16:3). 이병철 편, *구약편 성서원어대전 신학사전 II* (서울: 브니엘 출판사, 1988), 1254.

7) 출애굽기 19장 16-19절, 신명기 5장 1절, 23장 2절.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64.

8)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23-24.

9)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7), 34-35.

10) Robert J.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문, 1999), 57-58.

11) Ibid., 35-37.

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의존하며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은 교회의 개념을 가정 모임, 한 가족, 몸으로서의 공동체로 설명한다(고전 16:19; 엡 2:19-22; 고전 12:27). 다시 말해, 교회는 구성원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작은 규모로 모이는 공동체인 것이다. 또한 교회는 구성원들이 유대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분위기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 공동체이다. 그리고 교회는 구성원들 간에 책임과 섬김이 요구되는 몸으로서의 공동체이다.¹²⁾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즉, 교회는 곧 한 성령을 모시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령의 전’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회는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것은 곧 공동체적인 교회의 본질을 보여준다.

2.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의미로부터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조직신학자인 권문상은 인간과 하나님과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고 강조한다.¹³⁾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을 연구할 때, 삼위일체론적-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스 쾅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설명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 네 가지 요소로 교회의 본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온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름을 전제로 한다.¹⁴⁾ 따라서 교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인 것이다. 만약, 어느 개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을 신앙의 전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관

12)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72-105.

13) 권문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2006) 참고.

14)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87.

에서 나온 이해인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을 보면, 구약의 유대교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 종말론적으로 발전된 것이며, 이 종말론적인 희망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게 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종말론적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는 것이다.¹⁵⁾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는 종말론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벧전 2:9-10; 고후 6:16; 히 8:10; 계 5:10).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하여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를 하였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새 성전’으로 본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¹⁶⁾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맛보게 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며, 하나님을 ‘아버지’(αββα)로 부르도록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유한성과 결핍으로 인한 고난 속에 사는 인간들이 그 유한성을 극복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의해 결정되는 영생의 삶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구원이다.¹⁷⁾ 따라서 신앙을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개인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인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결코 개인화 되거나 성직화 되어서도 안 된다. 다만 교회는 온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 신앙의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와 결단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인간의 순종의 응답과 동의에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믿는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거기에는 아무런 죄도, 실수도 없는 무흠한 이상적인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교회는 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이자,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¹⁸⁾ 그러므로

15) 전성용, *성령론적 조직신학*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10), 612.

16)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118-119.

17)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66-67.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용서를 받고, 계속적으로 자비의 은혜를 힘입어 개혁되어야 할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교회가 선택 사상에 갇혀 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런 인식은 성경이 교회를 표현하는 특유한 명칭들로서, ‘성도들’(saints, 롬 1:7), ‘택한 자들’(elect, 롬 8:33), ‘사랑하는 자들’(beloved, 롬 1:7), ‘부르심을 입은 자들’(called, 롬 1:6),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골 3:12)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하다.¹⁹⁾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역사는 교회가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

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교회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된다(롬 12:5; 고전 10:17; 12:13, 22, 24; 엡 1:23; 4:12, 16; 5:23, 골 1:18, 24; 2:19). 이 개념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나타낸다. 특별히 이 개념은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서로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organic unity)를 말한다. 데이비드 왓슨(David Watson)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분리적(inescapably)이고 유기적인(organically) 그 구성원이라고 강조한다.²⁰⁾ 따라서

18)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85-93.

19) Herma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John Richard De Witt tran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330-333.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획일성의 의미가 아닌,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하나 됨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교회의 하나 됨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소멸을 전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각각의 주체성을 지닌 신자들 간의 유기체적인 연합인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사용한 용도를 보면, 로마서 12장 4-5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하였듯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각 신자들이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때, 각 지체로서의 신자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절대 필요적이다. 말하자면, ‘너’ 없이는 ‘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각 신자들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의존적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²¹⁾ 예컨대, 초대 교회를 보면 계급적이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평등하며 수평적인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갈 5:7-10; 엡 5:21).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초대 교회는 각 지체들 간에 상호 존중과 의존, 필요 의식을 가지고, 조화와 협력 속에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나누며 친밀하고도 유기적인 공동체성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울의 용법에 따르면, 각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기술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전 6:15). 각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으며, 세워져 간다. 그러한 몸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목표를 추구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엡 4:12-13, 15).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인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엡 1:22; 골 1:18; 고전 12:27). 이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생명의 관계요, 성장을 위한 은혜의 근원의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몸은 머리에 대한 순종으로만 존재가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장은 멈춘다.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몸으로서의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활

20) David Watson, *I Believe in The Church: With Study Guid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8), 97.

21)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서울: 브니엘, 2006), 225-226.

등을 한다 해도 성장이 아닌, 퇴보하게 되는 것이다.²²⁾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며,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항상 규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서도 혼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지도 않으며,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교회는 실제적인 지역과 장소와 시간의 한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과 만나시는 실존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²³⁾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주로서 현존하시면서 행동하시고, 이 행동을 통해 교회를 항상 새롭게 창조하시며 보존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²⁴⁾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의식인 ‘성만찬 예식’이다. 교회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함으로 깊은 교제에 이르게 된다. 이 예식은 계약과 교제의 식사로, 종말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찬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의 본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스 쿵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요, 신자들 상호 간의 교제다”²⁶⁾라고 말했다. 교회는 이 이중적 교제의 의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헌신을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동시에 신자들 간의 사랑과 헌신을 재확인하고, 공동체를 구체화하게 된다. 이로써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위한, 밖으로 세상을 위한 봉사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그 본질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과 순종의 관계

22)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112-113.

23) Otto Weber,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김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6), 334.

24) 이신건, *칼 바르트의 교회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9), 215. 한스 쿵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부활한 주님으로서 교회에 현존한다”고 말한다.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109.

25) 전성용, *성령론적 조직신학*, 614.

26)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107.

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며, 각 신자들과의 생명과 섬김의 관계성으로 공동의 성장을 추구하는 성화의 공동체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취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엡 2:22; 골 1:28-29).

다. 성령의 전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혹은 성령의 전'이다(고전 3:16; 6:19; 엡 2:21-22). 이 개념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의 본질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즉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요, 동시에 성령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⁷⁾ 그렇다면 교회는 성령을 교회에 예속된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즉 교회가 성령을 조정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성령에게 명령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²⁸⁾ 반대로 성령이 자유롭게 교회 안의 전 영역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장소나 시간을 초월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으로의 교회는 성령에 예속된 존재인 것이다.

'성령의 전'인 교회 안에서 성령은 복음을 마음을 열어 듣게 하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몸으로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한다.²⁹⁾ 그리고 성령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 교통과 사귄다'(spiritual communication and fellowship)을 시작하게 한다. 이러한 교제는 인간의 역할을 넘어서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의해 수여된 것이다.³⁰⁾ 그리하여 이 교제는 모든 인간적인 교제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간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한 공동체성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전'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27)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95.

28) 전성용, *성령론적 조직신학*, 616.

29) Gordon D. Fee,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길성남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103-105.

30) Howard A.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04.

하며, 옆으로 신자들 간의 교제를 이루도록 역사한다. 그리고 이 교제의 목적은 성령이 주신 공동체의 ‘하나 됨’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엡 4:3).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계속해서 자라게 한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됨’을 파괴하는 죄들에 굴복하게 될 때에는 교회를 하나 되어 자라게 하시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엡 4:30). 그러므로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엡 5:18).

신약신학자인 조지 래드(George E. Ladd)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바울의 중심 사상으로 교회를 형성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다.³¹⁾ 여기서 성령의 ‘한 몸’되게 하시는 역사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에게 인종적이며 사회 경제적 신분을 모두 초월하여 자신들의 다양함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건강한 다양성을 유지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여 각 신자들에게 여러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전 12:7). 그리고 성령은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한다. 각 신자들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수여된 은사들을 활용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한다.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2-14장은 ‘함께 모인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결론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공동체, 즉 복음 증거에 의한 회심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윤리적이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며, 한 몸을 이루어 강력한 연합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성령의 전’인 공동체이다. ‘성령의 전’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이 교회에 위임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31) G. E. Ladd, *신약신학*, 신성중,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608-609.

32) Fee,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109.

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몇 가지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는 가까운 미래에 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역동적인 의미를 보여준다.³³⁾ 그리고 사탄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대치하여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 실현은 하나님과 이웃을 대항하며 자기를 주장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영생의 삶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의와 생명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개념이다.

또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예수는 종종 잔치의 비유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마 8:11-12; 22:1-10; 25:1-13).³⁴⁾ 이 비유에서 잔치는 주로 풍요, 기쁨, 만족,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성경에서는 종말의 구원을 시온에 펼쳐질 메시아적 잔치로 그리고 있다(사 25:6). 예수는 이 잔치 비유를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사탄의 나라에서 근본적으로 제한된 자원 안에 갇혀, 결핍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게 됨으로 늘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부족한 자원을 늘리고자 남의 자원을 빼앗는 불의와 착취의 현실을 겪게 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신적인 부요함에 참여하여 만족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예수의 치유 사역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잘 보여준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예수의 치유 사건들은 종말론적인 통치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인간들 가운데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⁵⁾ 즉 예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이 사탄의 통치를 몰아내고, 사탄의 통치 아래 고통 받는 인간들을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사역

33)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50.

34) Ibid., 55-56.

35) G. R. Beasley-Murray,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1), 132.

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건은 예수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이미 현재 실현되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요 기초로서의 현재의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³⁶⁾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³⁷⁾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실존적 생활 속에서 사랑의 이중 계명의 구체적인 요구로 온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에 힘입어서 자기중심적 의지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순종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예수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파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공동체인 것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종합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이다. 또한 교회는 공동체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른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면서도 서로 배타적이거나 종속되지 않고,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의존 속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듯, 교회도 마땅히 이러한 본질적 특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타락하여 상실하게 된 하나님의 공동체적 본질을 바로 교회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교회에 본질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제 2 절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공동체성을 지닌 연합된 교회이다. 그리고 성령의 전인 교회로서 초대 교회를 본 받는 교회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건강한 교회의

36)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71.

3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15.

특성을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1.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교회를 말한다. 신약학자인 김세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의 이중 계명의 요구로 온다고 언급한다.³⁸⁾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이중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이다.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란 모든 계명들의 집약이라 정의할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35-40절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요약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확대시킴을 의미한다.³⁹⁾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에는 한 개인의 전인성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이 사랑은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사랑이며, 자신과 타인을 향하는 사랑임을 강조하셨다.⁴⁰⁾ 그런데 이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랑의 이중 계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계명임을 알 수 있다.

김세윤은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7장이 다름 아닌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한다.⁴¹⁾ 산상설교의 서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한 소위 팔복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고보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 해주심에 그들의 소망을 거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예수의 팔복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체성을 기초로 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교회는 세상에 대해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38)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08.

39) Louis A. Barbieri, Jr., *BKC 강해주석 시리즈 19: 마태복음*, 정민영 역 (서울: 두란노, 1994), 150.

40) Bruce B. Barton, et al, *LAB 주석 시리즈: 마태복음 (하)*, 전광규, 김진선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288-291.

41) 김세윤,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161

것이다.⁴²⁾ 또한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마 6:24, 34).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임을 가르친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해서 이웃 사랑의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⁴³⁾ 이렇게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며, 사랑의 이중 계명의 실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이중 계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 12장 28-34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에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πρώτη)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600개가 넘는 법률들을 분류하고 주요한 법과 사소한 법을 구분하려 했다.⁴⁴⁾ 이 질문에 대해 예수는 쉼마(신 6:4)를 암송하신 후, 사랑의 이중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강조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6:5)는 계명은 인격적으로, 포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계명은 이웃에 대한 헌신과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⁴⁵⁾ 따라서 사랑의 이중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의 답변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을 보면, 그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 모든 제의적, 의식적인 법들보다 더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런 반응에 대해 예수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셨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멀지는 않았지만’ 아직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제의와 의식을 넘어 하나님에게 무조건적인 향복이 필요하며, 이로써 사랑의 이중 계명의 실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⁴⁶⁾ 이와 같이 사랑의 이중 계명은 매순간의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갈림길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 사랑은 물질주의

42) 김세훈,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 2000), 25-26.

43) Ibid., 165.

44) Bruce B. Barton, et al, *LAB 주석 시리즈: 마가복음 (하)*, 박대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신교회, 2003), 126.

45) John D. Grassmick, *BKC 강해주석 시리즈 20: 마가복음*, 김도훈 역 (서울: 두란노, 1994), 194.

46) Barton, et al, *LAB 주석시리즈: 마가복음 (하)*, 127-134.

의 우상숭배를 통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삶을 거부하고, 우리의 아ب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매일의 공급해 주심으로 살겠다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헌신하게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를 누리는 삶의 자세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해 관대하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하게 하는 것이다.⁴⁷⁾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물질주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세상에서 이런 뚜렷한 구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가르쳤다(마 6:24-34).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예수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만큼,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살림은 현실화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의 부의 적절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확대되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⁴⁸⁾ 이런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공동체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다. 이런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힘주심을 위해 늘 기도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깨어 있는 교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9-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중심 기도이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도록 소원하는 기도인 것이다.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한다. '의'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할 의무가 있고,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다.⁴⁹⁾ 교회는 이런 관계적인 의무를 다하는 '의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

47)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162-163.

48) Ibid., 164-166.

49) 김세윤,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58-159.

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대속과 새 언약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모으는 하나님 나라의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생활 규범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제시하는 교회이다.

결론적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의 실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임을 알 수 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기에 자기 욕심과 안녕만을 추구하라는 세상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우상숭배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서 즉, 부요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예수의 발 씻어줌의 모범 정신을 본받아 희생적이며 차별 없는 이웃 사랑의 실천의 장을 확대 나가야 한다. 이런 교회가 곧 건강한 교회인 것이다.

2. 공동체성을 지닌 연합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내는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연합된 교회이다. 권문상은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성장주의와 경쟁주의에 빠져 연합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⁵⁰⁾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개교회 중심적인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연합의 관계로 회복된 교회인 것이다.

연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되 그분의 신적 본성을 해치지 않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었다.⁵¹⁾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룬 신적 공동체라는 것이며, 동시에 연합을 이루는 인간 공동체의 창조를 최고의 목표로 삼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연합을 이루고 유지해야 한다.

50) 권문상, “21세기 목회를 위한 조직신학적 제안: 교회의 공동체성에 주목하라”, *개혁신학*,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2), 1. *공동체로서의 교회* 참고.

51) 하나님은 합당한 공동체를 이룬 구원자를 남자로부터 창조하셨다. ‘돕는 배필’(창 2:20)의 진정한 의미는 ‘현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자’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홀로 있는 상태를 벗어나도록 ‘도와서’ 그들이 함께 연합하도록 창조된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돕는 자’가 ‘구원자(rescuer)’의 고차원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시다. 즉 이 단어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늘 사용된다(출 18:4; 시 33:20; 117:9-11). 이런 의미로 볼 때 ‘돕는 자’는 편의적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다. Bilezikian, *공동체 101*, 22-24.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가 드린 기도 내용에서 교회의 연합을 위한 목적을 보여준다. 먼저 교회 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의 연합과 증거를 위해 기도하셨다. 또한 교회 연합의 두 번째 목적은 복음의 분명한 전파이다. 복음이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진리 안에서 연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⁵²⁾ 교회의 복음 전파는 교회의 연합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교회의 분열이 화해의 복음을 약화시킨다면, 교회의 연합은 복음의 증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⁵³⁾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을 위해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의 반역이 근원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연합의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타락 이전에 누리던 온전한 일치와 조화된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의 틀 안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반공동체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교회가 연합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교회는 극단적으로 억압적인 제도주의로 인해 거대한 전체주의가 되든지, 급진적 개인주의로 인해 극심한 분열을 겪는 것이다.⁵⁴⁾ 교회는 연합이라는 그 교유의 특성을 상실하고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연합을 상실한 공동체라면 연합을 이룬 공동체가 누리는 능력과 생명력과는 거리가 먼 병든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연합을 상실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구속을 통해 다시 연합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실패한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과 연합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의 품안에서 한 몸이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십자가의 구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갖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참여하게 되어 있다.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들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롬 15:7).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관계에 반영할 때 성경적인 연합은 완성되는 것이다. 연합은 하나님의

52) Howard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232-233.

53) Ibid., 226-227.

54) Bilezikian, *공동체 101*, 66.

인간 창조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선물이다.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갖는 필수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교회의 연합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관계 즉 공동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며 언제나 상호 의존적이며 집합적인 존재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가 산업화, 분업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협동적인 농경 중심의 활동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능 중심의 활동이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자신과 이웃을 동시에 고려할 여유를 상실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차적 사회관계에 의한 협력으로 이루어진 생활방식이 익명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의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결국 인간은 실존적으로 공동체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인간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듯이(창 1:27, 28),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결과로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존재이다.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며 의지하는 삶이다. 그 사랑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며 인내, 양보, 상호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영원히 상대를 사랑하며 상대에게서 사랑받는 관계를 본질로 삼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너무나 자기 제한적이다. 삼위 하나님의 각 위는 타자가 되면서도 “함께 하는 타자, 곧 사랑받는 타자로서 다른 위격에 대한 속내를 꿰뚫어 아는 존재”인 것이다.⁵⁵⁾ 삼위의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행사하면서도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각각 다른 위격들의 삶을 같이 나누고 용납과 양보로 하나의 생각과 의지를 이루면서 그들 안에 사시는 것이다.⁵⁶⁾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은 한 마디로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인 삶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랑은 중요한 전제이다. 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면서 하나의 생각과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서

55) 권문상, “21세기 목회를 위한 조직신학적 제안: 교회의 공동체성에 주목하라,” 5. *공동체로서의 교회*, Cornelius Plantinga Jr., “사회적 삼위일체와 삼신론”에서 재인용.

56)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51.

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인 삶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함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보다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닮아가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교회의 공동체성에 관한 비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비유는 ‘가족’이다.⁵⁷⁾ 바울은 이 가족 관계 속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드림으로 서로의 삶에 깊이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⁵⁸⁾ 또한 공동체성에 관한 비유로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한다. 신자들은 각각 다른 고유한 은사와 직분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롬 12:4-5). 즉 하나님께서 유기체적 존재로 상호 의존의 관계를 통해 하나의 실존을 확인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각 지체들이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유기적으로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고 경험함으로써 ‘한 몸’이라는 하나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바울이 공동체성을 ‘몸’으로 비유한 것은 공동체의 목표가 단지 지체들 간의 조화를 창조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성숙을 향한 발전에도 있음을 나타낸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성숙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고전 1:10; 고후 1:13-14; 골 1:21-22; 엡 4:11-16) 많은 경우에 각 개인의 성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전 2:16; 13:9-12; 빌 3:12; 골 1:28).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성숙한 개인을 형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회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성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개인과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공동체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용한다면 상호 존중, 상호 신뢰로 한 가족, 한 몸의 개념을 심화시켜 교회를 내분과 분열주의로부터 지키게 될 것이다. 또한 상호 섬김, 상호 협력을 낳아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적, 도덕적으로 구별된 공동체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나아오게 하는 교회의 존엄성을 회복할 것이며⁵⁹⁾,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반영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적 연장이며, 완성될

57)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89.

58) Robert &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52-53.

59)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1996), 68-69. 송인규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예비적 구현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다.

3. 초대 교회를 본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의 본질을 드러내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였다. 초대 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시적 모델이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초대 교회를 본받는 교회인 것이다. 교회의 원시적 모델인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먼저 원시적 모델인 초대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다. 초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행 2:42). 무엇보다 초대 교회는 날마다 모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경배가 있었다(행 2:47). 그러므로 초대 교회는 예배 중심적 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예배란 문자적으로는 “어떤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⁶⁰⁾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이다(시 96:8). 이처럼 초대 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신약학자인 랄프 마틴(Ralph Martin)은 하나님의 속성인 살아계심, 은혜 베푸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하여 찬양해야 할 의무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한다.⁶¹⁾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예배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행하시는 것으로, 인간은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합당한 응답이란 전적인 항복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절대적인 헌신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렇

과 구별된 교회의 공동체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세상은 나누어지고 땅을 짓고 이간하지만 교회는 연합하고 한데 뭉치고 하나로 모이는 공동체이다. 세상은 소외시키고 담장을 쌓고 군림하지만 교회는 섬기고 형제애를 나누고 흥금을 털어놓는 공동체이다. 세상은 수단화하고 경쟁하고 자기만을 내세우지만 교회는 동참하고 협조하여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상보성의 공동체이다.

60) Ralph Martin, *초대교회 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9), 21.

61) Ibid., 25-34.

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시와 행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고, 회당 예배에서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랄프 마틴은 회당 예배의 구조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⁶²⁾ 이는 대중 찬양,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공동의 기도, 성경낭독과 강해 등이다. 회당 예배의 중심은 율법과 선지서들의 낭독과 번역, 그리고 설교나 강론이었다. 따라서 찬양, 기도, 말씀 등의 매우 간결한 요소들을 통해 예배의 정신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정일웅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새 언약과 연결하여 새로운 예배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이것이 초대 교회의 예배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고 말한다.⁶³⁾ 그렇다면, 초대 교회의 예배는 회당 예배와 성만찬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런 예배의 요소가 초대 교회가 복음 전도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 점이다.

그리하여 원시적 모델인 초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 초대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행 2:47)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포하고 증언하는 내용인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죄의 용서로 결핍에서 해방되어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수의 전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었다.⁶⁴⁾ 바울이 증언한 복음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전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 됨, 하나님과 화해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얻는 구원을 받으라는 포괄적인 선포이다.⁶⁵⁾ 정리하면, 전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복음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피조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62) Martin, *초대교회 예배*, 44-48.

63) Ibid., 98-100.

64)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45-52.

65) Ibid., 151-200.

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실존적 구원의 삶에 참여하도록 알리는 일이다.

전도학적 개념으로 보면, 현존 전도, 선포 전도, 설득 전도로 설명할 수 있다. 현존 전도(presence evangelism)는 소위 '전도 이전의 전도'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타내는 모범적인 삶을 통한 전도를 의미한다. 선포 전도(proclamation evangelism)는 비 기독교인들에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전도이다. 설득 전도(persuasion evangelism)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소개하고 인도하여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돕는 전도이다.⁶⁶⁾ 결론적으로 전도는 비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생적인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주며,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회심하도록 돕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초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영적 생명을 낳는 일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요 3:3; 롬 1:15; 고전 1:17; 9:16; 갈 2:2). 더 나아가 거듭난 그들의 영적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벧전 2:2). 그러므로 초대 교회는 복음 전도, 양육과 훈련 사역 모두를 중요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원시 모델인 초대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였다. 예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소그룹을 으로 사역하시는 원리를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마 17:1; 막 5:37; 14:33; 요 13:23; 18:15; 20:2; 21:20).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둘씩 가게 하심으로 소그룹 사역의 원리를 훈련시키셨고(막 6:7),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도 가르치셨다(마 18:19-20). 이런 가르침을 따라 초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양육 훈련의 모임과 식사와 찬미와 기도가 있는 교제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행 2:11; 2:42-47; 4:32-35; 5:11-42; 9:10-27; 11:19-23; 12:5; 13:1-13).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서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명령들이 자주 등장한다(롬 12:10; 14:13; 14:19; 15:7; 고전 12:25; 16:20; 갈 5:13; 5:25; 엡 4:32; 5:21; 골 3:16;

66)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9), 136-137.

살전 4:18; 5:11; 히 3:13; 10:24; 13:16; 약 5:9; 5:16; 벧전 4:9; 4:10). 이처럼 초대 교회의 소그룹은 사람들로 하여금 친밀해지게 하고, 서로를 알고, 돌보고, 삶을 공유하며, 도전과 도움을 주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서로를 점검해 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통로가 되었다.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부터 그들의 성품과 변화와 영적 성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소그룹은 초대 교회의 생명력과 확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서로 서로가 연결되는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라는 필요를 갖게 하고, 교회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건강한 교회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건강한 교회는 초대 교회의 원시적 모델을 따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전도가 있다. 또한 새로운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고, 성장하며, 사역하도록 세우는 양육과 훈련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건강한 목회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저해 요인들을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3 장

건강한 교회로서의 한국 교회의 진단

앞 장에서는 교회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내용을 토대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절에서는 한국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교와 무교, 그리고 세속화의 영향,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유교의 부정적인 영향

유교의 부정적인 영향이란 한국 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가부장적 가족중심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들 수 있다. 유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가족의 절대성’ 즉 개인의 삶보다 가족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로 본다.⁶⁷⁾ 그런데 본 연구자는 이 문화가 우리 사회와 교회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한다. 이는 전도적인 관점에서 소위 ‘가족 구원’이라는 공동체적 열망을 가지고 교회가 힘써 온 결과로 한국교회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가족 중심적 문화가 인간의 이기심과 맞물려 다른 모든 사회생활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규태는 한국인의 가족 개념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마치 사람을 어린이로 만들어놓은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67)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1998), 213-215.

즉, 집 안에서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집 밖에서는 도덕적으로 미숙한 어린이가 되어 버리거나, 낯선 것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폐해를 낳은 것이다. 즉 집단타율성, 의존성, 폐쇄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다.⁶⁸⁾ 삼송중앙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본 연구자가 부임하면서 신자들 간의 관계 속에 가족을 중심으로 집단타율성이 눈에 띄고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였다.

권문상은 한국인의 이러한 가족중심주의, 집단 이기주의 심성이 형성된 이유로, 지정확적으로는 수많은 침략을 받아오면서 외부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⁶⁹⁾ 즉, 안으로는 착취와 학대,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 지리적으로는 고정된 일터와 마을 생활의 경험 등이 총체적으로 겹쳐 불안정한 삶이 우리를 심리적 공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러한 정착 환경이 주는 안정감은 오히려 새로운 일터나 사람을 만나 대화할 여지를 박탈하였고, 만난다고 해도 선뜻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자기 보호적, 폐쇄적 자세를 갖게 한 것이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불안증, 여유 없는 마음 등의 극단적인 행태로 표출되는 배타주의, '우리'의식 등을 형성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 의식은 집단 이기주의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라는 집단을 피난처로 삼아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그 밖의 집단은 모두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동류의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에 한 몫 거드는 것이 '정'(情) 문화이다. 정이 들면 서로 좋지만, 정 떨어지면 서로 원수가 되는 문화이다. 한국인의 '정' 쌓기는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삼송중앙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족중심주의, '정' 문화가 강하게 드러나는 교회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혈연과 지연에 따라 형성된 그룹들이 서로 대치하며, 교회의 갈등과 반목이 거듭되는 것을 보았다.

유교가 강조하는 제사 제도를 보더라도,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가족 이기주의 문화의 산물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생존상의 위협을 극복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족을 의뢰한다.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 중심적 문화에서 의지할 아들이 없다는 것은 불완전함과 암담한 미래를 의미한다. 이는 현세에서 의지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불안정으로 연결된다. 이런 인식으로 제사를 통한 조상 숭배 행위는 단순히 조상을 추모하는 차원을 벗어나 자신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하나의

68)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1* (서울: 신원문화사, 1983), 370-380.

69)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01-104.

절대적인 종교 행위로까지 승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목적과 다르지 않다. 즉 가족 구성원들의 안녕과 번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⁷⁰⁾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신앙이 자기 가족의 안정과 미래라는 이기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은 건강한 교회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교의 영향을 좀 더 들여다보면,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족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옥을 먹는 정도였다면, 유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가족주의적으로 살지 않으면 거의 죽음에 이르는 수준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가족주의의 수직적 윤리 체계가 기득권 세력의 배만 불리고 갈등 구조를 더 심화시킨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중심적 기초가 되게 한 것이다. 또한 유교의 영향은 '효' 사상 즉 자녀가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효 사상으로 인해 동생이 형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신하가 왕을 공손하게 따르고 받드는 것이 자연적 질서라고 알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유교는 이런 원리로 사회 질서를 위한 규범을 만들어 한국인 모두를 가족주의 사상으로 교화시킨 것이다.⁷¹⁾

이러한 유교의 가족주의는 가부장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여 수직적 윤리체계를 만들어냈다. 즉 견고한 서열중심의 사회 체계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상향적 신분 상승 구조를 봉쇄하였고, 그 결과로 사회 구조를 계급화한 신분주의를 낳은 것이다. 아울러 서열 문화를 고착화 시켜, 선후배 문화, 학벌주의를 낳게 하였다.⁷²⁾ 본 연구자는 결과적으로 이런 수직적 서열 문화가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운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인식들이 남성우월주의로 여성을 배제한 남성 중심의 사역배치, 교회 조직의 평신도 제도의 서열화와 같은 조직의 계급 구조가 형성되게 만들었다고 본다. 삼송중앙교회도 이런 문화에서 예외는 아니다. 신자들의 의식들이 계급적 신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 본 연구자는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두 차례 진행할 때, 신자들이 신앙 성숙도, 은사적 사역 배치를 우선하지 않고, 인맥적이며, 관계적인 요인을 따지는 이유가 계급적 신분주의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한다.

70)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 (서울: 집문당, 2002), 32-34.

71)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22-123.

72) Ibid., 142.

유교의 가족주의는 가부장적 수직 윤리로 인해 차별과 억압을 받으면서도 강력한 ‘나’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강조하므로 집단 이기주의를 교착시킨 것이다. 이 집단 이기주의는 그 개체의 고유성이 유지되지 않으며, ‘자기 혼자’ 중심적이게 한다. 인간 관계는 철저하게 인화중심이며, 집단의 결정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게 한다.⁷³⁾ 본 연구자가 삼송중앙교회 부임 초기에 혼란을 겪었던 문제가 이것이다. 집단화된 ‘우리의식’이 강하다 보니 그들의 판단 기준이 집단의 결정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고, 그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집단 간의 힘의 논리가 형성되고 세력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곤 한 것이다. 결국 본 연구자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라는 유교적 영향으로 인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의 영향으로 한국교회 안에도 자기 교회 중심적인 개교회주의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래서 이웃 교회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였고, 대결 양상의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집단 이기주의는 철저하게 자기 집단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하나 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의 ‘우리’ 의식은 집단적이지만, 공동체적이지 않은 것이다.⁷⁴⁾ 따라서 ‘나 중심적 우리’라는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우리’에서 환영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든지, 아예 그 ‘우리’ 밖으로 밀려나고 만다. 이런 문제점이 교회 안에서 소위, ‘텃세’를 부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배타적 ‘우리’ 의식으로 뚝뚝 뭉쳐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삼송중앙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 즉 집단적 편 가르기, 분열주의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교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한국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가족이기주의, 집단적 분열주의, 평신도의 신학 부재 현상, 계급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교회는 병들고, 약해져 그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소금과 빛으로 사회를 바로 이끌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잘못

73)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51-157.

74) *Ibid.*, 167-170.

된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에 매몰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 무교(巫敎)의 영향

무교의 영향은 한국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무교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세월이 흘러 외래의 종교나 사상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할지라도 결국 살아남아 있는 것은 무교였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정신적 특성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 남아 있는 종교와 사상까지도 한국인의 이런 특성 앞에서 언젠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⁷⁵⁾ 지금도 무속인의 수는 대략 20만 명에 이를 정도이다.⁷⁶⁾ 그렇다면, 교회는 무교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무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동시에 긍정적인 부분을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⁷⁷⁾

하지만 본 연구자는 무교가 타종교나 사상을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교의 무비판적 수용은 다양한 상징적 양식들을 빌려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혼합주의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⁷⁸⁾ 이것이 외견상 다른 종교들과 혼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무교가 갖고 있는 고유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교는 그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래 종교의 상징들을 필요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나 유교의 경우, 그 종교들이 민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고유의 구조가 무교의 기본 구조와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⁹⁾ 이런 과정을 생각할 때, 본 연구자는 무교에 대해 한국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교의 프리즘을 통과해 혼합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무교의 대표적인 영향을 들여다보면, 한국인의 심성과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샤머니즘을 들 수 있다. 원래 '샤먼'(shaman)이라는 말은 터키 몽골어 'kam'의

75) 홍일식,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서울: 정신세계사, 2007), 129.

76)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116.

77)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 89. 장남혁은 무속신앙의 영향 가운데는 성경의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면도 상당부분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78) Ibid., 111.

79) 김재준, *한국의 재래종교와 그리스도*, 기독교 사상강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183.

의성어 변형에서 'sam'이라는 퉁구스어가 되었고, 이것이 영어로 가면서 '샤먼'(shaman), '샤머니즘'이 된 것이다. 페르시아어로는 '세먼' 즉 '우상 또는 사제'이라는 말에서 '병을 고치는 자'로 의미가 바뀌었다고 한다.⁸⁰⁾ 한국에서는 이런 샤머니즘을 무교(巫敎) 혹은 미신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무당 종교로도 부른다. 문제는 이 샤머니즘이 한국사회에 민간신앙으로 발전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무교의 샤머니즘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 안에 팽배되어 있는 기복주의가 그 예라 생각한다. 이 기복주의는 최고의 윤리적 의식과 도덕적이며 성숙한 삶을 요구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매우 세속적이며 저급하게 만들었으며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며 바른 신학적 사고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무당화시키는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가족 중심의 현세적 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의식을 심어놓았다. 이런 의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목회자를 복의 도구적 존재로 생각하는 의식들이 생겨났다. 본 연구자는 목회를 하면서 신자들의 의식 속에 목회자를 복을 가져오는 존재로 인식하는 예들을 많이 보았다.

무교의 샤머니즘의 악 영향을 좀 더 살펴보면, 잘못된 신 개념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즉 신은 사랑이란 찾아볼 수 없고 연약한 인간을 험박해 혼내주면서 살아가는 험상궂은 존재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신에 대해 인간 목숨을 쥐고 흔드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어 그 이상의 고상한 형이상학적 초월자로 생각하는 철학적 탐구는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신의 비위를 맞추면서 내 가족이 형통하면 되는 것이고, 건강과 재수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결국 신은 우리가 힘들 때만 찾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값을 지불하면 내 것이 되듯, 굿을 통해 신으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는 식이다. 이처럼 샤머니즘의 문제는 신은 자기 가족의 건강과 재물의 축복과 관련된 도구적 존재가 된다는 점이다.⁸¹⁾ 그리하여 샤머니즘은 내게 도움만 되면 그 어떤 신도 상관없다는 다신론적 신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세적 축복만 가져다준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한 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샤머니즘은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

80) 김은수, *비교종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37-338.

81)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82-83.

다. 그러면서 그 종교 현상들이 다양한 문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교의 샤머니즘의 영향은 우리 사회에 술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무당이 신명나게 춤추고 노래하듯, 놀아보자는 식의 형태가 우리 사회의 집단적 술 문화 속에 숨겨 있다. 삼송중앙교회 안에도 적지 않는 신자들이 이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시철만 되면 사찰과 교회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입시 문화에서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거부하여 삼송중앙교회에서는 입시철에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자들 안에서는 이런 기도회를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제사 의식을 통한 조상 숭배도 역시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현재 가족의 건강, 재물 운수에 항상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샤머니즘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들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무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⁸²⁾ 그래서 하나님을 복과 화를 주관하는 신으로 찾거나, 필요할 때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식이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앞에 나아가 감사와 경배를 드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예배 신학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복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복 신앙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은 그저 도구적 존재에 불과하다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것이 목적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인 것이다.

또한 샤머니즘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는 말씀 중심이 아닌, 은사 중심적 교회로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적 추구⁸³⁾와 같은 그릇된 신비주의에 심취하게 한 것이다. 본 연구자가 한국 교회의 강점으로 이야기되는 다양한 기도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보다는 무엇을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 한국 교회의 부흥회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 문제점도 드러냈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부흥회가

82) 권문상, *부흥 여개인 1907*, 94-98.

83) 본 연구자는 목회현장에서 어떤 신자들이 '이'를 '금 이'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체험했다며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이런 저런 집회를 찾아 떠도는 신자들이 있었다. 결국 이런 모습은 그릇된 신비주의 빠진 결과라 생각한다.

은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이면서, 신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기복적인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 이유도 자신들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나타난 점이다. 결과적으로는 부흥회가 신비적이고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성경 이해의 부족과 왜곡된 설교, 복음 선포의 부재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⁸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삼송중앙교회에 부흥 강사를 초대하여 여는 집회를 지양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신학에 충실하지 못하고 실용주의로 흐르는 모습을 띄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신학적인 사고 대신 실용주의적 사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자는 이런 변질들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샤머니즘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반 공동체적 이기주의이다. 말하자면 샤머니즘은 기복 신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교회는 성공주의적이고 개교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 일변도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크기, 교인의 수, 주일예배 참석 성도 수 등 숫자로 교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실상은 성장비율이나, 은사 활용 등의 질적 요소들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⁸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부분 양적 성장 목표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윤리도 신학도 중요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개 교회 이기주의가 편승되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저해하고 심지어 교회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개교회의 이기심과 폐쇄성은 한국 교회 안에 분열, 무분별하고 수준 미달의 신학교와 목회자 배출, 지나친 교회 밀집 현상 등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도 건강과 재물의 복만이 중요하

84)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 67-70.

85)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정진우, 오태균 역 (성남: NCD, 1999), 46-48. 교회의 규모 여부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양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즉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에 비해 거의 모든 질적 요소들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100명 이하의 소형 교회들이 출석 교인의 31퍼센트가 은사에 따라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대형교회는 17퍼센트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점이다. 소그룹도 소형 교회는 46퍼센트가 참여한다면, 대형교회는 12퍼센트만 참여한다. 이런 사례로 볼 때, 교회의 규모는 교회의 건강과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 타인의 권리는 관심 밖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교회의 사회적 리더십은 실종되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삼송중앙교회가 위치하는 고양삼송지구의 경우도 이런 개교회 이기주의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입주민 홍보 전도 현장을 나가 보면, 많은 개교회에서 나와 경쟁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 입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본다.

이상과 같이 무교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필요적이고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거룩한 삶보다는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게 한 기복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기보다 신비주의적이나 은사중심적인 교회로 만들어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의 부재 현상을 드러낸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해 교회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했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 세속화의 영향

한국교회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 함께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무절제한 사치와 방종은 거품 경제와 경제적 구조의 모순 등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한국교회는 이런 사회 국가적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고, 문제를 치유하고 바로잡지 못하면서 동반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다. 한때 천만 명 신자를 자랑하던 한국교회는 1장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5년 기준으로 가톨릭, 불교의 성장률에 비해 유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소 추세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의 2천 3백만 명 정도가 무종교인인데, 그들에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가 한국교회로 나타났다.⁸⁶⁾

이렇게 한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세속화'(secularization)의 영향이라고 이원규는 지적하고 있다.⁸⁷⁾ 이 세속화가 한국 교회에

86)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19-23.

87) 이원규, *종교 사회학의 이해* (과주: 나남, 1997), 577-582. '세속화'(secularization)란 "사회학적으로 사회변동의 결과로 종교에 변화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세속화의 원인으로는 계몽주의에 따른 지성의 발달과 의식 변화, 과학의 발달,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동기의 약화, 공동체성의 붕괴 등을 들 수 있다.

미친 영향을 보면, 먼저 여가 문화로 인한 신자의 주일예배 인원 감소와 예배의 영성이 빈곤해진 현상을 들 수 있다.⁸⁸⁾ 즉, 산업화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 현대인들이 소위 '대체 종교'(alternative religion) 특히 여가 산업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취미, 오락, 유흥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친 심신을 풀고 삶의 리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구실로 여유를 즐기기 위해 산이나 바다로, 취미활동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⁸⁹⁾ 여기에 자가용의 증가, 교통망의 확충, 휴양지의 경쟁적인 개발, 주5일제 근무 등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로 향하던 교회 신자들의 발걸음을 교회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물질의 풍요와 세속주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개인의 신앙을 허약하게 만들었고, 한국 교회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세속화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으로는 물질숭배주의와 외형주의에 빠진 현상을 들 수 있다. IMF 이후,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제로 인해, 생활고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우상에 가까운 자녀들의 문제 또는 불안정한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신자들의 눈길을 당장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사로 돌리게 만든 것이다. 일종의 물질 숭배주의를 추구하게 한 것이다. 이런 물질 숭배주의가 교회에 미친 영향은 교회의 외형주의, 물량주의, 성장지상주의 및 대형교회 선호사상 등이 깊게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다.

본래 교회 성장이라는 말은 교회성장학의 창시자인 인도 선교사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bran)에게는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교회가 잘 자라나느냐?'에서 출발하였지만, 그것이 변모되면서 오늘날에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치우치는 부정적인 말로 말이 쓰이고 있다.

그래도 본 연구자는 이 교회성장이라는 말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음화와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상명령에 순종하려는 제자도에 관심을 일깨워준다는 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원규가 그의 책,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에서 지적한 대로 성장 자체가 교회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88) 이원규, *종교 사회학의 이해*, 575. 한국교회 신자 숫자가 1985-1995년 사이에는 227만 명이 늘어나 35.0퍼센트 큰 증가율을 보이지만, 1995-2005년 사이에는 약 14만 명이 줄어 -1.6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명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89) Ibid., 575-577.

되어버리는 왜곡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질적 성숙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⁹⁰⁾ 그렇다면 성장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삼송중앙교회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성장주의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성장주의는 교인간의 수평이동이 심화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 없이 서구의 기독교인들처럼 '명목상의 신자(nominal Christian)'로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삼송중앙교회에도 이런 신자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본다. 결과적으로, 이런 신자들의 증가는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미친 세속화의 영향으로는 소위 맘몬이즘(Mammonism)⁹¹⁾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기복 신앙을 바탕으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를 평가 할 때, 재정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본다. 교회 안에서 물질이 최고라는 인식하에 교회 안에 부유층이 얼마나 있느냐로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어느 신자가 물질이 많으면 신앙이 좋아 복을 받았다고 해석하여 직분을 주는 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종종 한국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거론되는 것을 본다. 본 연구자가 신학생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회할 때 무엇보다 돈 문제, 이성 문제, 권력 문제 등에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한국교회의 윤리적, 도덕적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한국교회의 신앙은 도덕성과 연결해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 이른 데에는 목회자의 영성과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무엇보다도 세속화의 영향인 것이다. 이는 지금도 교회의 평신도

90)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4), 240.

91) 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감리교신학대학부출판부, 2002), 229. 맘몬이즘(mammonism)의 어원은 아랍어 마모나(mamona)에서 유래하였다. 성경적 용어로서 돈, 재산, 소유, 재물 등을 의미한다(마 6:24). 성경에서는 주로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원래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인데, 현대에 와서는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풍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와 목회자를 위협하여 영성을 약화시키고 넘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인 것이다.

세속화의 영향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절대 진리의 몰락을 들 수 있다. 이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⁹²⁾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분위기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적 토대의 상실이다. 그 결과 진리 또는 양심이나 자연법에 호소하는 전통적인 복음 전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⁹³⁾ 게다가 종교 간의 대화를 요구하며 종교 간의 대화에 소극적인 보수 기독교를 향해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닫혀 있고 폐쇄적인 종교로 이미지를 고착화시켜가며 복음 전도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⁹⁴⁾ 이에 편승하여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사회의 변화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목회적인 돌봄과 가르침이 부족하여 결국 답답함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위 떠돌이 신자들이 많이 양산된 것이다. 심각한 것은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들인 젊은이들 가운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관용적 태도를 보임으로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층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⁹⁵⁾ 이는 본 연구자가 현재 명지대학교 실로암 기독 동아리에서 사역하면서 만나는 청년들에게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목회자들이 목회 정체성의 약화, 성경에 대한 연구의 부족, 도덕성과 영성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가 약해지면서, 절대 진리의 거부라는 세속화의 영향은 더욱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세속화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약하면, 현대인의 여가 문화와 물질 숭배주의로 인한 영적 무관심,

92) 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27.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근대 이성으로부터의 포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17세기 시작된 이성에 근거한 시대정신인 근대주의(modernism) 정신이 시간에 지나감에 따라 비인간화하는 지배 이성으로 발전되었기에, 탈 이성의 시대정신으로 등장하게 된 것을 말한다.

93) 김영한, *포스트모던시대의 세계관*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09), 23.

94)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126.

95) 한국교회문제연구소 편, *한국교회의 갈 길과 교회문화* (서울: 여수문, 1996), 169.

지나친 성장 주의로 인한 명목상의 신자들의 증가, 목회자들의 윤리 부재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절대 진리에 대한 냉소적 태도로 인한 목회자의 말씀 선포의 약화 등의 현상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해 교회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올바르게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정리해 보면, 첫째로 유교의 영향은 교회 안에 가족이기주의, 분열주의와 개교회 중심주의, 서열문화와 계급주의, 권위주의, 남성 우월주의와 남녀 차별 등의 현상을 낳았다. 둘째로, 무교의 영향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평신도 신학과 지도자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등의 현상을 낳았다. 그리고 셋째로 세속화의 영향은 물질주의, 목회자와 평신도의 윤리 부재, 절대 진리의 거부 등의 현상을 낳았다. 이와 같이 목회자, 평신도, 공동체를 위협하고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한국교회가 안고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자의 삼송중앙교회 역시 이런 영향에서 예외가 아니며, 이런 문제들로 인해 고충을 겪었고, 오랜 침체에 빠져 있어야 했다. 그러면, 다음 절에서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제 2 절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평신도 신학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성경 교육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1. 목회자의 올바른 목회 철학 정립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철학이 올바르고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올바르고 분명할 때 교회의 목표와 방향에 있어 일관성 있는 목회 실천이 가능하며, 신자들의 일관된 헌신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교회의 리더로서 사역하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해 교회는 좌우될 수 있으며, 목회자만큼 교회는 성장한다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건강한 목회자의 역할을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올바른 목회 철학을 정립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올바른 목회 철학은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의 이해에서 나와야 한다. 교회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목회자를 필요로 한다. 그리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토마스 C. 옥덴(Thomas C. Oden)은 목회자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부름 받아 안수식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며, 기독교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에 전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양육하도록 따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이다.”⁹⁶⁾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대로 본다면, 올바른 목회 철학은 목회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 받아 교회를 인도하고 양육하도록 하나님과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올바른 목회 철학은 목회의 목적에 대한 이해에서 나와야 한다.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예수의 목회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마 3:2; 10:7; 12:28; 13:11; 막 1:4; 1:14-15; 눅 17:21).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예수의 목회적 관점으로 보면, 목회의 목적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이러한 사역이 지속되도록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키며 살게 하라”(마 28:19-20)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한 바울의 목회 사역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바울의 목회적 관점으로 보면, 목회의 목적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여 바로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예수와 바울의 목회의 목적을 토대로 성경적 목회 철학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

96) Thomas C. Oden, *목회신학-목회의 본질*,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89.

을 위해 목회자에게 직무와 은사가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올바른 목회 철학은 목회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에서 나와야 한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목회의 직무를 살펴보면, 가르치는 일,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행 2:42). 이러한 견고한 바탕 위에 초대 교회에 “주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행 2:47).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명의 집사를 택하여(행 6:3)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직무를 위임해야 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행 6:4) 전념할 수 있었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토마스 옥텐은 집사(diakonos)의 직무의 특징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의 목회 사역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⁹⁷⁾ 즉, 목회자는 신자들을 섬기는 직무를 맡은 자인 것이다.

초대 교회는 집사를 임명한 후에, 장로(presbuteros)를 세운다. 장로는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언급하고 규정하고 있듯이, 흠잡을 데 없는 성품, 결혼 생활의 충실, 훌륭한 부모로 믿는 자녀를 둘 것, 비방 받지 않는 생활 등의 기본 자격 조건을 갖춘 자여야 했다. 그리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고, 회개와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며, 가정을 방문하고, 믿음을 위해서는 불평하지 않고 수고와 시련을 견디어내는 일이었다. 이는 목회자가 양떼를 돌보는 목자(poimen)의 이미지임을 보여준다(행 20장, 벤티전 5장). 교회의 회중이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야 할 두 가지 도덕적인 기초는 하나는 목회자는 시간을 할애하고 신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치는 자이며,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라는 것이다(히 13:17-18). 즉, 목회자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직무가 있는 자인 것이다. 또한 초대 교회는 감독(episkopos)을 세운다. 감독은 교회의 선교의 효과를 총괄하는 자로, 사도적 신앙을 시대에 합당하게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권위를 보증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시대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감독하는 자이다.⁹⁸⁾ 즉, 목회자는 넓은 시야에서 양떼들을 통괄하고 지키는 직무가 있는 자인 것이다.

97) Oden, *목회신학-목회의 본질*, 111-112. 토마스 옥텐은 목회자의 직무를 집사, 장로, 감독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98) Ibid., 113-119.

이상과 같이, 목회자의 목회 철학은 목회자의 정체성, 목회의 목적, 목회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 철학 없이 목회 사역을 할 때, 종종 그런 목회자를 통해 교회에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본다.⁹⁹⁾ 반면에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 철학을 지닐 때, 옥한흠의 경우처럼, 영향력 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⁰⁾ 이 경우를 보면, 목회 철학은 하나님이 공동체에 부여하신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목회자가 보는 목회관이라 볼 수 있다.¹⁰¹⁾ 분명히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확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목회관이 성경적 목회에 대한 이해를 벗어나는 주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목회자의 목회관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뚜렷한 검증 기준을 목회자의 판단과 평가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⁰²⁾ 하여튼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한계성을 넘어설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즉, 한 사람 목회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 항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99) 목회자의 대한 잘못된 인식은 목회자가 신성시되거나, 목회자 스스로 세속적 욕망과 권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 되고 있다. 그리하여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절대복종과 의존적인 신자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100)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43-53. 옥한흠은 소위 '한 사람 철학'으로 목회하였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패러다임으로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다. 한스 쾅의 교회론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 온 모든 성도들이 사도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전 성도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성경을 계승하고,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역을 계승해야 한다는 철학을 확립하고 소위 '광신론'을 강조하며 목회를 하였고, 이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의 모델이 되고 있다.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4), 68-70 참고.

101)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178-183. 칼빈의 목회관은 교회론에 기초한다. 즉 그는 교회가 경건한 어머니로서 평신도를 양육할 의무를 지니며, 살아 있는 유기적 공동체로 서로 봉사하는 한 몸이어야 하며, 학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평신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웨슬리의 목회관은 구원론에 기초한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요청이 신앙 운동의 원동력이 되고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교훈 곧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은총의 수단으로 제도화된 수단(기도, 성서 탐구, 성만찬, 금식, 집회 등)과 가변적 수단(신도-society 반, 속회-class반, 조-band 등의 조직)이라는 목회 과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렇듯 목회자의 신학적 초점(강조)에 따라 목회관, 목회 철학이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02)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203.

2. 평신도 신학의 정립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평신도 신학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평신도 신학이란 무엇인가? 김성욱은 “평신도 신학이란 교회 안에 안수 받지 않은 다수의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¹⁰³⁾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교회가 평신도들에 대한 열의는 있지만, 어떤 신학적 기초가 없이 단순한 교회 성장의 한 프로그램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바른 평신도 신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신도 신학을 확립할 것인가? 무엇보다 평신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하비 콘(Harvie M. Conn)은 평신도를 ‘역사에서 잊혀진 존재’¹⁰⁴⁾라고 말했다. 옥한흠은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성직 개념을 오른손으로는 밀어내고 왼손으로는 받아들이는 모순을 더 이상 방임해 둘 수는 없다”¹⁰⁵⁾고 비평하고 있다. 과연 평신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평신도 신학의 기초인 교회론과 만인제사장론의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회론적으로 보면,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또한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상호 의존의 관계로 묶여 있으면서 서로를 위해 영적 봉사를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평신도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즉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회개의 열매를 가진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¹⁰⁶⁾

다음으로 만인 제사장론으로 보면, 평신도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성경적 교훈에 근거한다(벧전 2:5,9; 계 1:6.). 만인제사장으로서 평신도는 신자들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자들이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 중보자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평신도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영적 제사란 복음의 증거(롬 15:16), 찬미와 형제를 돕는 봉사(히 13:15-16), 기도(계 8:3) 등으로, 자기 자신과 삶 전체를 제물로 하여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평신도는 말씀을 증거

103)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275.

104) Harvie M. Conn, *Training the Membership for Witness* (Cape Town: RES Mission Conference, 1976), 75.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278에서 재인용.

10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86.

106) Ibid., 78-81.

하는 자들이다. 이는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전 생활의 증거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평신도는 중보하는 기능을 가진 자들이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세상에 있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¹⁰⁷⁾ 이것이 평신도들의 정체성이요, 곧 그들의 위상과 역할이다.

그러면 평신도 신학의 관점으로 볼 때, 과연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은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옥한흠은 한국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고, 목회자들은 타락해 가는 마당에, 가치관과 양심이 왜곡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평신도들의 제대로 된 위상과 역할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평신도들은 교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¹⁰⁸⁾ 따라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평신도들을 보는 관점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즉 '신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신자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로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하며 준비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평신도 신학을 강조하는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 원로교수인 폴 스티븐스(Paul R, Stevens)는 '구비자'(Equipp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목회자의 역할을 의사, 그물을 고치는 어부, 토기장이, 부모, 설계자 등으로 설명한다.¹⁰⁹⁾ 이와 같이 평신도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변화가 급선무인 것이다.

빌 헐(Bill Hull)은 그의 책, *변혁, 21세기 교회의 생존 전략*에서 “평신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¹¹⁰⁾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목회자와 평신도들과의 교착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07)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82-85.

108)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14-19.

109)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성오 역 (서울: IVP, 1985), 128-149.

110) Bill Hull, *변혁, 21세기 교회의 생존 전략*, 마영래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87.

나는 많은 목회자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혹은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이 나와 마음을 같이해 주시기만 한다면”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어왔다. 한편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지도력을 발휘해 줄 수만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만 있다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놀라운 일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같은 바람, 즉 효과적인 교회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교착 상태가 교회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¹¹¹⁾

또한 빌 헬은 평신도들 안에는 세 종류의 그룹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들은 할 수는 있지만 확신과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둘째, 앞장서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하고 싶어도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셋째, 어떻게 앞장서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이들은 주로 훈련의 부족과 불분명한 비전의 문제를 갖는 있는 사람들이다.¹¹²⁾ 따라서 목회자는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인식, 필수적인 훈련 프로그램 등의 필요를 평신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목회자들이 기능적으로 평신도들의 역할을 부여하는데 있어, 제자가 아닌 행정가, 사역자가 아닌 정치가, 지도자가 아닌 관리자, 창의적인 사고자가 아닌 틀에 박힌 사고자들로 키워왔다는 점이다.¹¹³⁾ 이는 결국 목회자들이 방법과 원리의 차이, 형태와 기능의 차이, 프로그램과 창의성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교회가 평신도 신학에 대한 확립과 인식의 결여에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평신도 신학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고도 유익함을 알았다. 평신도 신학을 요약하면, 평신도들은 성경적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그들 고유의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평신도들에게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역사적으로 평신도들은 시

111) Hull, *변혁, 21세기 교회의 생존 전략*, 86.

112) Ibid., 88-89. 빌 헬은 이러한 평신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적인(회생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며, 새로운 비전에 대한 헌신을 개발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야 영적인 동기를 부여받게 하고 그들이 사역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Ibid., 104-128.

113) Ibid., 90-95.

대마다 그들의 삶과 일생을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기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교회론과 만인제사장론의 신학적 진리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평신도들과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며, 양자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하며, 평신도들이 성경적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건전한 성경 교육의 실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 번째 작업은 건전한 성경 교육의 실천이다. 이 건전한 성경 교육의 실천은 무엇보다 기독교의 근간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신약학 교수인 김세윤은 지금의 시대는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채로 이해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 및 윤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결국 올바른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세계 속에서 기독교적 선교 사명을 더 넓고 깊이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한다.¹¹⁴⁾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결코 지나친 강조가 아님은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현장 주변에서 경험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플러신학대학원 총장인 마크 래버튼에 의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명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된 삶을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교회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은 이 선물을 구하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교단 간 불일치, 교회에 대한 헌신의 감소, 육체적, 물질적 타락 등의 대처 방안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지녀야 할 공동체적 소명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¹⁵⁾ 그가 말하는 공동체적 소명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114)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8-9.

115) Mark Labberton, *제일소명: 세상을 위한 하나님 백성의 제자도*,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21, 39-43. 마크 래버튼은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상처받은 경험을 가진자들이

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위기는 마치 교회가 길을 잃은 것처럼, 자기 정체성과 목적으로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실패한 이유와 관련하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교수였던 씨 에스 루이스(C. S. Lewis)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구석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¹¹⁶⁾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목적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살게 된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을 시야에서 걷어 내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에 뛰어들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를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세윤은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복음의 진리를 터득하기 어렵고,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윤리적 판단이나 선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¹¹⁷⁾ 그의 지적은 옳다. 그리고 본 연구자 또한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교회에 대해 붙인 이름들을 설명하면서, 소명이 교회 안에만 있는 듯한 자기중심적인 교회, 세속주의적 경향이 강해 존재감이 없는 교회, 분열과 공격을 위해 부르심 받은 듯한 억압적인 교회, 차별이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교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는 교회 등으로 분류했다.

116) C. S. Lewis, *영광의 무게*, 홍종락 역 (서울: 홍성사, 2008), 12.

117) 김세윤,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8.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교회 안에 올바르게 깊이 있는 건전한 성경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한 전인교육의 실패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교회의 교육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제대로 길러 내지 못한 점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소위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적 가치관에 한국 교회의 정신이 간혀 버린 탓이다. 다시 말해, 한국 교회가 시대정신이 되어버린 경쟁하는 삶의 방식과 실적 위주로 인간을 평가하는 가치 인식에 지배당하고 만 것이다. 교회는 교육의 동기나 목표 역시 개인의 질적 변화보다는 외적 성장의 도구로 활용되는 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교회는 교회 설립 초기부터 성경 말씀 연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획을 그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 출발점은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지역의 성경공부와 말씀 사경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레교회 담임목사인 이문장은 한국 교회는 말씀이 살면 교회도 살고,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지는 현상을 보였다고 말한다. 또한 계속해서 그는 서구의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신자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게 된 원인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교육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¹⁸⁾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깊은 침체에 빠져있다고 한다. 이러한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형적 성장이나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회관에서 벗어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16세기 마틴 루터나 장 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하였던 것처럼 무엇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의 깊은 연구만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의 갱신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아직도 여러 가지 외국의 목회 이론과 교회 성장 이론들의 실험장으로 사용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이 문장은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다.¹¹⁹⁾

118) 이문장, *한국인을 위한 성경 연구 원리편*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3), 13-15.

119) Ibid., 13-15.

우리는 그의 지적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국 교회의 위기는 한 마디로 교회의 성경 교육의 실패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건전한 성경 교육의 회복이다. 소위 성경적인 핵심 가치를 깨우쳐 삶에 실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변화된 신앙인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경 교육을 이룰 것인가? 먼저 성경 교육의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 성경 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¹²⁰⁾ 성경 교육은 방법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변화된 삶의 결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성경 교사가 무엇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신자가 무엇을 배웠느냐를 넘어서, 그 교육을 통해 배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성경 교육은 그 교육의 준비와 과정만큼 더 중요한 것이 교육의 결과인 것이다.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 보면, 열심히 나와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참여하는 신자들이 있다. 그러나 실상 그들에게 교육장 밖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 성경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 입장이나, 교육을 받는 참가자 모두가 올바른 목표에 초점을 두지 않을 때 벌어지는 결과들인 것이다. 이처럼 건전한 성경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됨과 분명한 삶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¹²¹⁾ 교회가 이런 건전한 성경 교육의 목표를 향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건전한 성경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내용의 문제도 중요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교회가 건강해 지려면 복음이 최우선되어야 한다.¹²²⁾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보다도 높임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

120) Josh Hunt, Larry Mays, *왜 내게 배우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가*, 최일희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1999), 14-16.

121) Ibid., 25-26. 조쉬 헌트는 예수 제가가 되는 결정적인 성향 9가지를 말한다. 제자는 매일의 삶에서 훈련된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자존감을 갖는다. 공동 예배를 드리는 데 참여한다. 친밀한 가정생활을 이룬다.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분명한 열정을 갖는다. 평신도 사역에 참여한다.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에 헌신한다. 저자는 이런 명확한 성경 교육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모임에 몇 명이 참석하는지 계수하는 대신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을 주문한다.

122) Harry L. Reeder,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송영일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86.

는 은혜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때, 율법주의나 도덕주의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된다.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초대 교회 사역의 핵심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초대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¹²³⁾ 해리 L. 리더(Harry L. Leeder)는 성경 교육에 있어 건강한 교회를 위해 가르쳐야 할 몇 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¹²⁴⁾ 첫째,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이다(딤후 3:15). 본문을 복음과 연결시켜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갈 3:14). 셋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¹²⁵⁾(딤후 3:16). 넷째, 신자들에게 유익하며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과 적용의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딤후 3:16; 엡 4:20-24). 일종의 인간성 회복의 교육이다. 다섯째, 믿음 안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길러낼 수 있는 온전하게 하는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딤후 3:17). 이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분별과 통찰을 갖게 하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교리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건전한 성경 교육을 위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의 방법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 방법론은 크게 계획단계와 제시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시 단계는 실제 교육 내용을 말하고, 계획 단계는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를 말한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핵심은 계획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즉, 성경 본문을 그 본문에 맞는 문화 형식으로 가르쳐야 하고, 중요한 성경 본문 자체를 다루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에 무지한 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은 성

123) 초대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은 선포된 말씀이었고, 그들의 교제는 함께 나눈 말씀의 사역이었고, 떡을 뭍은 가시화된 말씀의 사역이었고, 그들의 기도는 돌려드리는 말씀의 사역이었다. 말씀 사역의 최우선 순위야말로 초대 교회의 성공의 핵심 열쇠이다. Reeder,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118.

124) Ibid., 120-129.

125) David Jackman, *왜, 성경인가?*, 김진선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4), 8. 데이비드 잭맨은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책이므로 하나님께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계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거짓된 자율성을 추구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책이라고 말한다.

경 지식이라도 일상 속에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오히려 너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성경 교육의 방해 요인이 된다. 많은 내용보다는 충분한 의미 전달이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본문이 본래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질의 문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⁶⁾ 정리하면, 건전한 성경 교육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치기, 중심사상을 명료하게 가르치기, 성경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하기, 성경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기, 성경 본문을 오늘 세계에 맞게 해석하기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본 연구자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지하게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성경 교사의 삶¹²⁷⁾이라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건전한 성경 교육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신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열쇠는 한국 교회의 성경 교육에 있다. 이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올바른 목표, 내용, 방법을 통해 먼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길러 질 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대안인 것이다.

126) Jim Wilhoit, Leland Ryken,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비결*, 최예자, 문희경, 손미라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 1996), 13-32.

127) 박정식, *21세기 新교회론 평신도는 없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36. 박정식은 목사로서 평신도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깨지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성경 교사가 가르쳐야 할 성경 자체 내용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최초의 제자훈련은 교회 부흥이 아닌 교회가 깨지는 훈련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목사인 내가 깨지는 현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지 못한 것,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동역자로 세워야 했음에도 엉뚱한 은사 운동이나 해서 요행수나 바라고,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원망하고 결국 목회를 포기하려 했던 나 자신이 철저히 깨지는 시간이었다."

제 4 장

삼송중앙교회의 역사와 현황

앞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들을 논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목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 장에서는 그 주체인 삼송중앙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간단한 역사와 현황을 중심으로 교회를 파악해 볼 것이다.

제 1 절 삼송중앙교회의 역사

본 절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개척과 시련기, 교회의 발전과 시련기, 그리고 교회의 전환과 부흥기, 이 셋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로 본 삼송중앙교회를 진단할 것이다.

1. 교회의 개척과 시련기(1970-1990)¹²⁸⁾

삼송중앙교회는 1970년 5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당시에는 신도읍이라는 작은 마을 17-6번지에 위치한 공지 밭에 60평의 가건물로 지어진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10여명의 신자들이 박용장 목사를 초대 교역자로 하여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개척자인 박용장 목사는 약 6년간의 개척 사역을 힘겹게 하던 중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1976년 6월 19일에 사임을 하게 된다.

128) 삼송중앙교회, 직원 회의록 노트 (삼송중앙교회, 1980-1989). 사무총회록 자료는 다 분실되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직원 회의록을 참고하였고, 또한 본 연구자가 이홍석 명예 장로와 만나 인터뷰(2014년 12월 24일 오후 6시 담임목사실에서) 하여, 그 내용을 참고해 정리함.

그리고 1976년 6월 20일에 백승석 목사가 제 2대 담임 교역자로 취임을 하게 된다. 백승석 목사는 어려운 예배 환경과 재정 가운데 사역을 하던 중, 1980년 5월에는 권사 2명의 일꾼을 세웠고, 1982년 3월 15일에는 가건물의 예배 처소를 헐고 그 자리에 60평의 교회를 건축하여 완공하였고, 이듬해에 장로 2명, 권사 5명을 세우며 교회 건축 봉헌식을 갖게 된다. 이후 교회는 출석 신자 150여명 정도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 나갔다. 1988년 10월 3일에는 장로 2명과 권사 11명의 일꾼을 세우며 탄탄한 평신도 리더십을 구성하게 된다. 이어 1989년 ‘배우고 증거 하자’(마 28:19-20)라는 표어아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실천 중심, 전도 중심의 실천 목표를 세우고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을 향해 힘써 나가던 중, 담임교역자의 갑작스런 사역지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교회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해 신자들은 담임교역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성지 순례를 보내드리려고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갑작스런 사임 통보와 좀 더 좋은 조건의 교회의 청빙을 받아 떠나는 담임교역자를 바라보던 신자들은 충격과 함께 목회자에 대한 큰 실망과 불신에 휩싸이고 만다.

교회와 당회는 문제를 수습하고자 급히 담임교역자를 구하였고, 1989년 5월 12일에 제 3대 담임교역자로 안길섭 목사가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갑작스럽게 새로운 담임교역자를 맞이하게 된 교회 신자들과 새로 부임한 담임교역자와의 관계는 순탄하지 못했고, 또 다시 교회 대지 구입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을 겪게 된다. 결국 1991년 1월 30일 안길섭 목사는 해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다시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고 만다. 곧바로 교회는 1991년 1월 6일, 동대문 성결교회 김광선 목사를 청빙 결의하면서, 그 해 2월 10일 제 4대 담임교역자로 김광선 목사가 부임하게 된다. 이로써 초기 개척 및 시련기가 마무리된다.

2. 교회의 발전과 시련기(1991-2009)¹²⁹⁾

1991년 2월 10일에 제 4대 담임교역자로 부임한 김광선 목사는 군 장교 출신으로 추진력을 발휘하여 그해, ‘든든히 서가는 교회’(행 9:31)를 표어로, 10월 29일에는 오랜 기간 교회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던 교회 주변의 땅 242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하

129) 삼송중앙교회, *사무총회록*, 제22회-제40회 (고양: 삼송중앙교회 1991-2009). 사무총회록 자료와 함께 본 연구자가 이홍석 명예 장로와 만나 인터뷰(2014년 12월 24일 오후6시 담임목사실에서)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였다. 11월 17일에는 명예 장로 2명, 명예 권사 2명을 추대하는 행사를 갖는다. 계속해서 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면서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간다.

그러던 중 1995년 3월에, 당시에 선임 장로가 담임교역자와의 관계로 인해 사임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 일로 인해 신자 20여명이 교회를 이탈해 개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 해 '안디옥 교회를 모범하자'(행 13:1-5)라는 표어로 교회가 다시 힘을 내어 영성 훈련과 전도에 매진하면서, 1996년 10월에는 교회건축 선포식을 갖는다. 그리고 1997년에는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삼하 7:13)라는 표어로 교회 건축에 들어간다. 그해 건축 재정의 어려움과 공사과정에서의 몇몇 사건들을 겪으면서 신자 수가 다소 감소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해 12월 7일에 교회 봉헌식, 담임목사 위임식과 함께 장로 1명의 일꾼을 세우게 된다. 1998년, 1999년에는 전도와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40여명의 새 신자가 등록하면서 예배 참여 수가 다시 증가하였고, 1999년 10월 31일에는 장로 1명과 권사 3명의 일꾼을 세우게 된다.

2001년, 2002년에는 사랑의 이중계명의 실천 차원에서 고양 사회교육원, 청소년 선교 센터, 소망의 상담 전화 등을 개설해 운영하였고, 한구석 밝히기 삼송클럽을 운영하는 등의 교회 밖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한다. 그러던 중 2003년 12월 12일에는 장로 2명이 개인 사정 및 목회자와의 갈등 문제로 사임하는 일이 또 벌어진다. 그 달에 열린 사무총회에서는 신자들로부터 새 신자 교육의 부재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담임교역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이 건의를 수용하여 2005년에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행 2:47)라는 표어로, 새가족 수련회를 개최하였고, 기관별 전도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그해 3월 27일에 장로 1명이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또 다시 사임을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후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형성되던 분파로 인해 교회 분열이 더욱 드러났고, 예배 참석 수가 60-70명 선으로 더욱 감소하게 된다.

그러다가 2007년 5월 29일에는 교회 종교 부지가 삼송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개발공사로 수용 매각되어 교회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교회 매각 후, 교회는 예배 처소를 정하는 문제와 교회 재산 처리 문제로 교회 내에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를 원만히 수습하여 드디어 2008년 12월 4일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84-25에 위치한 부지를 구입하여 임시 예배 처소를 건축

봉헌하게 된다. 그렇지만, 교회의 이전 문제, 도시 개발에 따른 신자들의 이사와 이동, 담임교역자의 은퇴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교회는 또 다시 갈등과 분열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던 중 2009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행 2:17)를 표어로 시작하면서, 담임목사의 은퇴와 새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문제 가운데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8월 30일, 김광선 목사의 원로 추대와 함께 제 5대 담임교역자로 이철희 목사가 취임하게 된다. 이로써 교회의 발전과 시련기가 마무리되고, 본 연구자가 담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3. 교회의 전환과 부흥기(2010-현재)¹³⁰⁾

2009년 9월에 이철희 목사는 부임 일제 심방을 하면서 신자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그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경통독 부흥 사경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그해 10월에는 성경훈련학교를 개설하여 성경 교육을 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웃사랑 축제를 준비하며 지역 전도에 집중하면서 20여명의 신자 증가도 이룬다. 2010년에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계 2:5)라는 표어로 성경통독 행진, 2 단계 성경 훈련, 새 신자 양육을 실시하였고, 구역장 야유회 및 연합 산상 기도회, 전교인 야유회 등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에 힘썼다. 그해 3월 28일에는 명예장로 1명 추대, 권사 1명, 안수 집사 2명의 일꾼을 세웠고, 5월 1일에는 주민 센터를 통해 삼송 지역의 어려운 일곱 가정 자녀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므로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기회도 가졌다. 5월 30일에는 김수원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며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체 일일부흥회 및 전교인 101일 말씀 기도 전무운동을 실시하여 말씀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자 힘썼다.

2011년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라는 표어로 새 차례의 전도 초청 행사를 실시하여 전도에 주력하였고, 교회가 지원하고 있던 새 곳의 미자립 교회 담임교역자를 초청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교회

130) 삼송중앙교회, 사무총회록, 제41회-제45회 (고양: 삼송중앙교회 2010-2014). 2013년 4월 28일 장로장립 임직식을 가지면서 당회가 구성된다. 본 내용은 사무총회록과 2013년 5월 당회록부터 현재까지의 당회록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들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 기도하므로 개척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비다 봉사단을 창단하여 신도 주민 센터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들 10여 가정을 선정해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봉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같은 해에 새로 등록된 새 가족들과 몇몇 기존 신자들 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이 벌어지면서 10여명의 새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일로 본 연구자는 큰 상처를 받아 한 동안 침체를 겪는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있어 왔던 교회 분열의 원인들을 파악하게 되었고, 공동체성 회복의 절실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에 들어간다. 또한 신천지 이단자 한 사람이 등록하면서, 얼마 후 다른 두 이단자를 전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새 가족으로 위장 등록시키며, 신자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려는 중에, 새 가족 모임을 통해 그들의 정체가 발각이 되어 추방되는 일도 발생이 된다. 그리하여 교회 내의 분열과 이단들의 공격을 받게 된 교회는 다시금 영적 회복과 연합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2012년에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소서'(합 3:2)라는 표어로, 전도 팀을 구성해 지역 전도에 박차를 가하였고, 교회 안으로는 사랑의 학교를 7주간 실시하여 공동체성 회복과 치유에 주력하였다. 무엇보다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종교 부지를 선정하고, 5월 13일 교회 건축 기공예배를 드린다. 이 과정에서 건축 설계 방향에 대한 이견이 생겨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이후 건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침내 2012년 12월 9일에 신축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다.

2013년에는 '믿음에 굳게 서라'(골 2:6-7)는 표어로 주중에는 성경 교육에 주력하였고, 교회 밖으로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홍보 캠페인 차원에서 이야기 마당극, 열린 음악회, 청소년 음악회 등을 열어 각 계층을 초청하여 주민들과의 만남의 행사를 진행한다. 주말에는 하미소('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줄임말) 아카데미를 열어 재능 기부자를 강사로 무료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하였고, 교회 1층 로비와 연결된 한 공간을 '하미소 갤러리'로 주중 미술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유명 기독교 화가들의 작품 초대전을 열게 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역 홍보와 삼송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만남의 시도를 통해 장년 150여명, 교회학교 50여명이 등록하여 수적인 증가를 하게 된다.

2014년에는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롬 4:17-22)이라는 표어로, 새로

들어온 신자들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일에 실시하는 다양한 성경 교육을 실시하여 평신도 사역자 훈련과 발굴에 나선다. 그리고 남전도회 조찬기도회를 실시해 남성 신자들 간의 영성 함양과 공동체성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관별 단합 및 전교인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전 교인이 하나 됨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한다. 교회 밖으로는 토비아스 카페 운영을 통한 기부금을 모아 인근 고양동산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창릉동 주민 축제에는 교회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과 연합하는 기회를 가졌고, 하미소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교회는 다시 장년 140여명, 교회학교 50여명이 등록하여 수적 증가를 계속 하게 된다. 이로써 교회는 새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4. 건강한 교회로 본 삼송중앙교회 진단

교회의 초기, 개척과 시련기의 특징은 신자들에게 평소 존경 받고, 영성 있던 목회자의 갑작스럽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역지의 이동, 평신도와의 투명한 소통의 부족을 드러낸 목회 리더십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교회가 갈등과 시련을 겪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목회자의 안정적인 사역지 선호와 이동의 문제는 세속화 영향이라 하겠고, 목회자의 권위주의적인 의사 결정 문제는 유교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라 진단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이 이 시기의 삼송중앙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교회의 발전과 시련기의 특징은 군 장교 출신 목회자의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목회자의 권위주의적인 결정, 소통의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평신도 지도자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의 동력이 자꾸 꺾이고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교회 초기와 동일하게 목회자의 권위주의적 모습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지는 목회적 환경을 만들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평신도 신학에 입각한 평신도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점과 예배를 통한 말씀의 가르침 외에 건전한 성경 교육이 부족했던 점들이 원인이 되어,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교회 내의

갈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 진단된다. 결국 이런 점들이 이 시기 역시 삼송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이유를 보여준다.

교회의 전환과 부흥기의 특징은 내부적으로 교회 건축이라는 환경 변화와 외부적으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적인 변화가 맞물리고, 새로운 목회 리더십과 평신도 간의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건강한 교회의 요소들인 목회자의 올바른 목회철학에 따라 건전한 성경 교육과 평신도 개발에 주력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된다. 물론 젊은 목회자로서, 미숙함을 드러내는 일들도 있었지만, 신자들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연합을 위한 노력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다양하게 마련된 사랑의 교제의 기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말씀과 적용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현장을 제공하므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목회 철학의 반영이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제 2 절 삼송중앙교회의 현황

본 절에서는 삼송중앙교회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삼송중앙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고양삼송지구의 지리적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으로 삼송중앙교회가 고양삼송지구로 이전하는 과정과 이전 후의 현황을 살펴 볼 것이며, 이에 따른 삼송중앙교회의 목회 비전과 사역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삼송중앙교회의 지리적 상황¹³¹⁾

삼송중앙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고양삼송지구’는 일산신도시와 서울의 중간지점으로 지구 중앙에 통일로가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지하철 3호선이 통과하는 등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충 지역이다. 이에 대응하여 도시의 광역적인 계획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자족성을 갖춘 자연친화형 계획도시’로 조성된 곳이기도 하다. 동 지구는 인구 66,480명(22,160가구)을 수용하고, 주거용지 33.8퍼센트(504천 평),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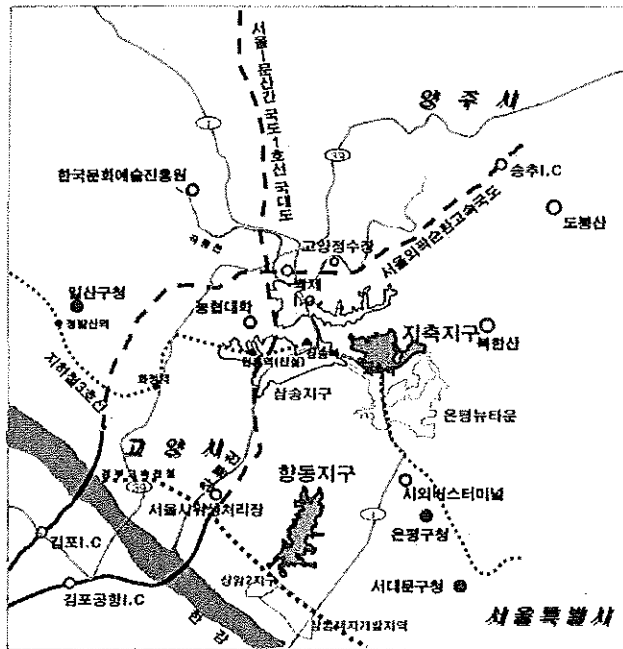
131) <http://www.molit.go.kr/USR/NEW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04년2월16일, 2006년6월26일) 참고함.

업, 업무용지 4.2퍼센트(62천 평)를 비롯하여 공원녹지 25.8퍼센트(하천 포함시 31.9퍼센트)로 계획되어 <표 1>의 사업 개요에 따라 <그림 1>의 위치도 대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표 1> 고양삼송지구 사업 개요

지구명	고양 삼송지구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 동산, 신원, 원흥, 용두, 대자동 일원
면적	4,925천㎡(1,490천 평)
건설호수	22,160호(국민임대 11,099호: 공동대비 55.3퍼센트)
수용인구	66,480인

<그림 1> 고양삼송지구 위치도



고양삼송지구 특징은 균형개발에 있다. 따라서 동 지구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슬럼화를 방지하고 소득계층 간 조화를 위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평형 규모를 다양화한 분양주택을 적절히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지구 및 주변의 양호한 경관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축의 단절이 없도록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

이에 삼송중앙교회는 2007년에 매각한 보상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종교부지 선정과 교회 신축 전까지 사용할 예배 장소를 정해야 했다. 이 사안을 놓고 목회자와 신도들 간에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동 지구 내에 삼송동 84-27의 222평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8년 12월 4일에는 임시 건축하여 교회 봉헌식을 갖는다. 이와 동시에 김광선 목사의 원로 추대 논의가 진행되고, 2009년 8월 30일에 김광선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후임으로 이철희 목사가 담임교역자로 취임하게 된다. 이로써 교회 이전과 건축의 과제가 새 담임교역자인 이철희 목사에게 주어진다.

2010년에는 시무 장로의 은퇴로 당회가 없어지고, 교회의 모든 사안들에 대한 의결권이 직원회로 넘어가면서,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에 다소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어 개발 지구 내에 선택할 수 있는 종교부지가 13개가 있었는데, 종교부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이견들이 나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2010년 6월 29일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60-1(1,202.40제곱미터)의 종교부지를 정하여 약 27억 4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후 2011년 4월 13일에는 건축설계사를 선정해 교회 건축 설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그해 12월 18일 제 42회 사무총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한 비전헌금 선포식을 갖는다. 이 때 이철희 목사는 목회소신에 따라, 많지 않은 신자들의 동요를 막고 헌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동체적으로 건축 재정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여 신자들의 결속을 다진다. 그리고 건축설계사와 계약하여 교회 재정 상황을 고려한 설계에 들어가 설계를 완성한다.

그 후 시공사를 찾는 중에, 이철희 목사가 고심과 기도 끝에, 저렴하게 짓는 신축 교회의 외형과 구조에 관한 설계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신도시에 맞는 건축설계와 시공으로 가자는 의견을 내면서 내용을 겪게 된다. 결국 담임목사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건축위원장이 사임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2012년 3월13일에 새로 선정한 건축사로부터 지하1층, 지상 2층의 설계안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시공사를 결정하여, 2012년 5월 13일 오후 2시에 감격의 착공감사예배를 드리고, 흠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2012년 5월 13일부터 교회 건축을 위한 1010기도를 선포하여 온 성도들이 한 끼 금식하며 합심기도로 하나 되기를 결의하여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2012년 7월 22일에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

인 은혜로 이전 교회 부지 일부(147평)가 매각되어 교회 건축비를 마련하게 되었고, 인근 복지관을 임시 예배 처소로 정하여 첫 예배를 드리게 된다. 2012년 12월 9일에 아직 내부 공사가 덜 마무리 된 시점이지만, 신축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2월 13일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고, 2월 18일에 등기필증을 교부 받게 되면서 2013년 2월 17일부터 1부(오전 9시 15분), 2부(오전 11시 10분), 3부(오후 2시) 주일예배를 드리게 시작한다. 이렇게 하여 교회의 고양삼송지구 이전의 과정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3. 삼송중앙교회의 이전 후 변화

삼송중앙교회가 고양삼송지구로 이전한 후, 마침내 신축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양삼송지구로 이사 오는 주민들 가운데,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수가 증가하면서, 평균 40-50여명의 방문자들이 꾸준히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등록자들이 나오게 된다. 또한 삼송중앙교회는 본격적으로 고양삼송지구의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별로 전도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2013년 4월 28일에 입당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때부터 삼송중앙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알려지게 된다.

고양삼송지구로 이전한 후에 삼송중앙교회는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 청장년 324명으로¹³²⁾, 교회학교는 132명으로, 총 456명으로, 중·고등학생 이하가 약 29퍼센트에 해당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히 어린이부서인 유치부가 신설되어 성장의 핵심이 되었고, 교회학교는 총 20여명에서 130여명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큰 성장의 원인에는 앞서 살펴 본 대로 <그림 2>와 같이, 삼송중앙교회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다. 즉 교회학교 전도에 있어 매우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남·여전도회 기관은 8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분포율은 나이가 제일 어린 기관인 3남전도회, 4여전도회가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상황이고, 주로 기관은 교제와 섬김,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직분자로는 교역자 5명, 시무 장로 2명, 시무 권사 11명, 시무 안수집사 4명, 서리 집사 123명이 있다.

132) 삼송중앙교회는 2012년 기준으로, 교세가 장년 재적 110명, 평균 출석 60명 정도였다.

<표 2> 삼송중앙교회 연령별 교인 분포(2014년 12월 14일 기준)¹³³⁾

구분	교인수			
	남	여	계	퍼센트
총계	217	239	456	100.0
0 대	26	31	57	12.5
10대	44	31	75	16.4
20대	22	24	46	10.1
30대	38	44	82	18.0
40대	35	39	74	16.2
50대	28	41	69	15.2
60대 이상	24	29	53	11.6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 신자 중 30대-50대가 225명으로 49퍼센트에 해당하는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교회 전체 구성원을 보면, 50대 이하가 약 88퍼센트로 젊은 계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추세이다. 담임목사가 50대 초반인 것과 비례하여 신자의 연령 계층이 상당히 젊은 교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삼송 신도시, 특히 삼송중앙교회 주변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창릉동, 신도동으로 이사하는 주민들 가운데 30-50대 연령층이 약 50퍼센트에 이르며, 전체로 보면, 50대 이하가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여 지역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삼송중앙교회는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투어'(교회를 찾아다니는 현상)하는 사람들을 '방문자'라고 칭하며, 그들의 대부분은 고양삼송지구에 있는 5-6개의 교회를 방문하여 새로 정착할 교회를 찾는 중이다. 그리고 방문자들의 약 60퍼센트는 30-40대의 연령층이다. 그래서 삼송중앙교회는 방문자들을 '예비 신자'라는 차원에서 최선의 섬김으로 영접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차별화하여 등록에 대한 어떤 권유도 하지 않으면서도 삼송중앙교회의 강점과 비전을 보여주며, 그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의외로 이런 교회의 모습에 감동해서 등록하는 이들이 많다.

133) 삼송중앙교회 등록 교인 전산 자료 2014년 12월 참고.

<표 3> 창릉동, 신도동 주민 연령별 분포(2014년 12월 기준)¹³⁴⁾

구분	창릉동, 신도동 주민 (단위: 명)			
	창릉동	신도동	계	퍼센트
총계	10,484	7,849	18,333	100.00
0 대	1,031	506	1,537	8.4
10대	974	567	1,541	8.4
20대	1,133	1,113	2,246	12.3
30대	1,879	1,073	2,952	16.1
40대	1,729	1,108	2,837	15.5
50대	1,858	1,570	3,428	18.7
60대	1,033	945	1,978	10.8
70대	625	721	1,346	7.3
80대 이상	222	246	468	2.5

삼송중앙교회를 방문하는 30-40대 연령층이 많은 이유를 보면, <표 3>에서 지역 주민 연령별 분포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체 32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삼송중앙교회의 신자 연령 분포에도 반영되고 있다. 새 신자들의 분포율을 보면, 유치부 자녀 1-2명을 둔 30대-40대 가정이 주로 등록하는 추세이다. 삼송중앙교회가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2년 동안, 전체 276명(2014년 12월 14일 주일 기준)이 등록하여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것은 등록자들 가운데 초 신자 수준의 신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즉,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신앙의 기본인 경건 생활이 주중에 거의 전무한 등록자들이 총 등록 수의 70퍼센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사 관계로 부득이 하여 교회를 옮긴 '이동 신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어린이 부서의 성장세는 크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미래는 밝다. 이제 이들을 어떻게 건강한 신자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느냐의 문제다. 여기에는 삼송중앙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다음 항에서는 삼송중앙교회의 지리적, 교회적 상황을 고려한 올바른 목회 철학과 비전, 그리고 주요 사역의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34)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신도동 주민등록 전산자료 2014년 12월 참고 (창릉동, 신도동 주민자치센터).

4. 삼송중앙교회의 목회 비전과 사역

하비 콕스(Harvey Cox)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새속 도시*에서 “도시 문화의 발생과 전통적 종교의 붕괴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기술 지배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³⁵⁾ 삼송중앙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고양삼송지구는 불과 몇 년 만에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제 2차 전도 여행 시에 전략적으로 고린도 도시를 찾는 것을 본다. 당시 약 75만에 달하는 인구가 고린도 도시에 있었고, 그 도시에 사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된다.¹³⁶⁾ 바울의 행적은 도시 속 선교가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기독교 선교 전략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삼송중앙교회는 도시 선교 전략이 절실한 삼송 신도시의 중심에 서 있다.¹³⁷⁾ 무엇보다 2015년 초부터 삼송중앙교회 주변 1킬로미터 반경 안에 새로 신축되어 입주하게 될 아파트 단지가 세 개가 있다. 삼송 20단지 1,066 세대, 삼송 19단지 627 세대, 삼송 18단지 1층 3,583 세대나 된다. 이처럼 고양삼송지구 조성 에 따라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를 찾아 여러 교회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삼송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이 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는 도시 선교에 적절한 선포적인(kerygma) 기능, 봉사적인(diakonia) 기능, 친교적인(koinonia) 기능이 따라야 한다.¹³⁸⁾

이런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목회자의 철학과 비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

135) Harvey Cox, *새속 도시*, 구덕관 외 5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7.

136) John R. W. Stott, *사도행전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1992), 348.

137) 삼송 지구가 속해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2014년 11월 기준으로 경기도 고양시 인구의 62 퍼센트에 해당하는 423,706명, 165,875세대가 거주하는 큰 지역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삼송 지구로 이동해 오는 상황인 것이다. www.govang.go.kr 고양시 인구 현황 검색 참고함.

138) Harvey Cox, *새속 도시*, 147.

국 갈보리 교회 담임목사인 글렌 와그너(E. Glenn Wagner)는 그의 저서 *Escape from Church, Inc.*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 교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목사님,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반드시 바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저는 이 교회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적어도 40개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그 가운데 단 하나도 제대로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급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영원히 진리로 여겨야 합니까? 아니면 그 진리라는 것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변해야 합니까? '새로운 목회자, 새로운 비전'이라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 영원히 변치 않는 비전은 오직 단 한 가지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모든 목사님들이 저마다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¹³⁹⁾

이 교인의 이야기처럼,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목회 비전이나 계획, 프로그램 등이 바뀌는 현상이 있다. 삼송중앙교회 역시 그렇다. 과연 그렇다면, 목회 사역이란 영구적인 비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본 연구자는 그 해답이 전적으로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향해 품었던 것과 일치해야 한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현재 삼송중앙교회는 '새 계명과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 공동체'라는 영구 표어를 가지고 있다. 즉 사랑과 선교에 헌신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운다는 목회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이중계명, 공동체성, 초대 교회를 본받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목회 비전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골 1:28) 목회철학을 추구하는 목회자이길 원한다. 어떤 면에서 이런 철학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눈에 보이는 규모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목회를 하기 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의 목회 철학은 세상과 구별되고,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다. 솔직히 성장을 바라는 점도 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단지 성경적인 신실한 목회의 열매로 여길 뿐이다.

139) E. Glenn Wagner, *하나님의 교회 vs 교회주식회사*,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0), 32-33.

그러기에 삼송중앙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성숙한 신자를 세우는 목회철학과 교회 본질에 충실한 목회비전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예배와 훈련)과 일관되게 목자로서 신자들을 돌보는 일(기도와 상담)이다. 또한 사랑과 섬김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성을 위한 일(소그룹)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봉사와 전도)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삼송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목회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5 장

건강한 삼송중앙교회를 위한 목회 방안

앞 장에서는 삼송중앙교회의 역사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 삼송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목회적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건강한 목회자를 위한 방안

건강한 목회자를 위한 방안으로 본 절에서는 올바른 목회 철학과 비전 세우기 및 목회 전략 세우기, 그리고 목회자의 자기 관리 등이 제기될 것이다.

1. 올바른 목회 철학과 비전 세우기

20세기 한국 교회의 위대한 목회자중 하나로 꼽히는 제자훈련의 거성 옥한흠 목사의 목회철학은 ‘교회론’을 기초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성경의 통찰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에 주목하면서, 이 ‘한 사람’ 철학을 갖고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의 목회를 하였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소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작은 자에 주목하는 패러다임이다.¹⁴⁰⁾ 하용조의 목회철학은 ‘구원론’을 기초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목사란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비전을 가진 자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목표이다. 그 ‘하나님 나라 비전’ 철학을 갖고 사도행전적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소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주목하는 패러다임이다.¹⁴¹⁾

140)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44-45.

이들의 목회철학은 하나는 교회 안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다른 하나는 교회 밖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목회관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지니면서, 교회의 본질을 올바르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²⁾

그러면 본 연구자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 본 연구자의 목회 철학은 한 마디로 ‘성숙한 신자’이다. 즉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목회이다(골 1:24-29). 이에, ‘성숙’을 추구하는 목회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는 세 가지이다. 먼저 영성(spirituality)이다. 이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신앙인을 세워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성실한 성경읽기와 기도생활, 순종의 삶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목회이다. 다음으로, 섬김(service)이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인적인 예배자로 세워,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기 부인, 겸손, 희생의 십자가 신앙을 소유한 신앙인을 세워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종(servant) 된 삶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목회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이다. 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신앙인을 세워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랑의 이중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목회이다.

이러한 목회 가치들을 근거로, 삼송중앙교회의 비전은 교회의 본질에 따라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성을 지닌 연합된 교회, 초대 교회를 본 받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역 목표는 성숙 지향적 사역, 연합 사역, 사람을 세우는 사역, 전인적 구원 사역에 두고 있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평신도들과 공유하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목회적인 대화의 틀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기도, 성경, 상담 등이다.¹⁴³⁾ 즉,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한 관심, 목회의 대상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141) 하용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과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13), 25-41.

142)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실천신학 개론*, 182-184. 존 칼빈(John Calvin)의 목회관은 교회론에 기초한다. 그래서 목사의 의무는 하나님의 봉사를 대행하는 직무를 맡은 자요, 평신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자로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목회의 틀을 세웠다. 반면에, 존 웨슬레(John Wesley)의 목회관은 구원론에 기초한다. 그래서 목사의 의무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훈련과 교훈의 직무를 맡은 자로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목회의 틀을 세웠다.

143) Eugene H. Peterson, *균형, 그 조용한 목회혁명*,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11-12.

관심을 갖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먼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자 힘쓴다. 다음으로 성경 읽기와 연구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등을 탐구한다.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한 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해 듣는 시간도 갖는다. 이 또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쏟는 일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 원칙을 세워 목회의 우선순위로 삼는다. 즉 기도, 성경 읽기, 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목회 계획을 세우고, 사역의 틀을 짜고, 매일의 직무를 수행해 나간다. 이렇게 세워진 목회 철학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목회 전략이 요구된다.

2. 목회 전략 세우기

본 연구자가 목회 전략으로 삼는 것은 예배, 평신도 리더십, 전도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예배를 중시한다. 이는 어떻게 예배를 이끌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둔 목회 전략이다. 본 연구자는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의 필연적 전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다. 그러므로 감정이나 분위기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에 의해 결정되는 예배를 지향한다. 그리하여 예배의 메시지는 계시와 복종에 참여하는 행위, 하나님 신앙의 중심부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결정하라는 부름을 중심 메시지로 삼는다. 결론적으로, 예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열매는 모든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높이며,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며, 회중을 변화시키고, 축복과 격려의 말씀 안에 치유와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다.

또한 평신도 리더십을 중시한다. 이는 어떻게 회중을 동역자화 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둔 목회 전략이다. 본 연구자는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양육과 훈련이라는 큰 틀을 정해 놓고 있다. '양육'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비전을 전달하

고 공감하도록 돕는 모임이다. 여기서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성도를 목표로 하며, 이곳에서 일군을 발굴한다. 이 모임에서는 ‘누구를 키울까?’ ‘어떻게 키울까?’를 고려한다. ‘훈련’은 특별히 선택한 자들의 모임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헌신하도록 돕는 모임이다. 여기서는 전문성과 은사를 발휘하는 성도를 목표로 하며, 이곳에서 리더를 키운다. 이 모임에서는 ‘어디에 배치할까?’ ‘무엇을 위임할까?’를 고려한다. 특별히 평신도 리더십의 모델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10계명을 정해 놓고 교육한다.

첫째로, 꿈을 가진 리더가 되라. 꿈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둘째, 자존감을 가진 리더가 되라. 열등감과 상처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자존감을 가지라.

셋째, 재미를 아는 리더가 되라.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모든 일을 즐기라.

넷째, 감사하는 리더가 되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다섯째, 희생하는 리더가 되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 배려, 나눔으로 희생하라.

여섯째, 포기하지 않는 리더가 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며 다시 일어서라.

일곱째, 변화하는 리더가 되라. 본질에는 일관성을 보이고 자신의 모든 것은 개혁하라.

여덟째, 소명으로 사는 리더가 되라. 은퇴는 없다. 상벌의식이 아닌 소명의식으로 살라.

아홉째, 올바르게 일하는 리더가 되라. 정확하게 일하되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라.

열째, 성령님을 의존하는 리더가 되라. 모든 것이 성령님께 달려 있음을 의식하며 살라.

평신도 리더십들이 외우며 늘 사용하는 구호로는 “Scars into Star! 달아서 못 쓸망정 녹슬어서 못 쓸 도구는 되지 말자. 실패는 넘어질 때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이다.”이다.

그리고 전도를 중시한다. 이는 어떻게 복음을 심고 영혼을 거둘 것인가에 가치를 둔 목회 전략이다. 본 연구자는 목회자는 ‘전도자’라고 늘 강조한다. 전도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토양 만들기’이다. 이는 공동체의 선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지역으로 나가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꾸준한 사회봉사, 문화사업, 인격적인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열매 거두기’이다. 이는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을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획된 초청 행사, 일대일 전도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다.

본 연구자는 예배, 평신도 리더십, 전도 등의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모든 목회 실천 계획 등을 짜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효과적이며 신실한 목회적 실천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철저한 자기 관리는 필수적이다.

3. 목회자의 자기 관리

본 연구자가 생각할 때, 목회자의 삶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공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만큼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하기 쉽다. 유능한 설교자의 설교를 도용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순서에 따라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형식적인 심방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자들을 만족시키는 목회자가 되기 쉽다. 그러기에, 세상의 직업으로는 더 좋은 것이 없는 직업인으로 전략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자신을 지키고 목회사역을 진실하게 유지하고, 목회적 정체성을 보존하게 하는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기도, 성경, 상담, 자기 점검 등을 사용한다.

가. 기도

본 연구자는 자기 관리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개인 기도이다. 본 연구자는 항상 목회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가급적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힘쓴다. 물론 현재의 목회적 상황은 점점 더 기도의 시간을 여러 가지 일들로 채우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다. 지금도 목회자로서 가장 우선하며 중요한 행위가 ‘기도’라는 확신은 확고하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은혜를 얻기 위한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언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응고되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도록 돕는 행

위로서의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나는 말씀이 그날의 기도 제목이 되고, 신자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그들에게 기도회 시간에 나는 묵상 말씀을 요약하여, 성찰과 적용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29일 오전 8시23분 발송 문자는 아래와 같다.

월요일 아침, 며칠 안 남은 2014년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오늘도 파이팅, 건강하시고요. [오늘의 말씀] 로마서 2:17,18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묵상> 1. 오늘 성경은 유대인이 지닌 종교적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2. 유대인들의 특권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3. 문제는 그런 특권과 지식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과 훈련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풍부한 영적 자산을 얼마나 삶으로 옮겨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말씀의 실천력은 어떤가요? <기도>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는 하루되소서. 이철희 목사 드림.” 본 연구자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이런 내용의 문자를 매일 신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나. 성경 읽기

목회자로서 본 연구자의 자기 관리는 성경 읽기에 중점을 두는 일이다. 매일 1-2시간 성경읽기 시간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설교 준비가 아닌, 목회자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단순히 성경책을 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개념이 강하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읽는 책이 아니라, 나를 읽는 책(The book that reads me)”인 것이다.¹⁴⁴⁾ 따라서 성경읽기의 주도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닌,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며, 성경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144) Hans-Ruedi Weber, *성서, 나를 읽는 책*, 연규홍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12.

힘쓴다. 본 연구자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성경을 대할 때, 묵상과 주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 힘쓴다. 이는 설교 사역과 관련하여서도 결코 간과하지 않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 상담

목회자로서 본 연구자의 자기 관리는 상담에도 무게를 두는 일이다. 이는 본 연구자의 목회의 대상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끄시고 맡겨 주신 하나님의 소유들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활동하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상담은 신자들로 하여금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자리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이다. 본 연구자는 이것이 신자들이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을 다루는 일이라 생각한다. 즉 영혼, 죄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들을 다루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일은 목회자인 본 연구자가 죄인으로서 죄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며,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방향에 있어 끊임없이 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세를 잃지 않는 일이다. 그리하여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음을 공감하는 일이다.

정리하면, 건강한 삼송중앙교회를 위해 담임목회자인 본 연구자는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영성, 섬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기초로 하여 교회의 본질에 따라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고, 공동체성을 지닌 연합을 이루며, 초대 교회를 본받는 교회를 세우고자 힘쓰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예배와 평신도 리더십, 그리고 전도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를 신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 성경, 상담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리더¹⁴⁵⁾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답전 4:12-16).

145) Jeff Caliguire, *사도 바울의 리더십 비밀*, 김창영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92. 제프 캘리콰이어는 바울의 리더십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내면의 성장을 이룬 리더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리더를 원하며, 그 리더의 영향력은 리더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라. 목회자의 체크리스트

본 연구자는 목회자로서 목회 전반에 관한 자기 평가를 할 때, 여러 항목들을 정리하여 점검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존재 목적 점검이다. 예수의 주되심과 그의 종 됨을 증거 하는 목사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그러므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평가한다.

둘째로, 목회 철학의 점검이다. 모든 신자들을 사랑과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변화되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자'로 세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셋째로, 목회 핵심 구조 점검이다. 예배는 말씀 강해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현장이어야 한다. 소그룹은 초대교회 영성(행 2:42-47)을 지닌 재생산력 있는 교세권이 되어야 한다. 리더십은 정착양육훈련, 제자훈련, 전도훈련, 선교훈련, 성품훈련을 거쳐야 한다.

넷째로, 목회 프로세스 점검이다. 먼저 지역 전도로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다음으로 정착 양육으로 신자로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제자 훈련으로 일군으로 키우고 있는가? 그들을 사역 선교의 장에서 리더십으로 세우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다섯째로, 목회 확신 점검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항상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한다. 전도의 확신을 갖는다.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 설교의 확신을 갖는다. 잘 준비된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믿는다. 기도의 확신을 갖는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킴을 믿는다. 훈련의 확신을 갖는다. 사랑과 체계적 말씀이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믿는다. 사역의 확신을 갖는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교지라 믿는다. 인도의 확신을 갖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므로 책임지실 것을 믿는다.

여섯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다. 먼저 변화되는 목사가 되자. 지금 나는 지속적인 영적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가? 소망을 전하는 목사가 되자.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가? 진실한 목사가 되자. 지금 나는 생활 속에서 순결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일곱 번째, 자신과의 관계 점검이다. 나의 영성 관리에 성실한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묵상, 성경연구, 복음전도 등에 성실하자. 지식 축적에 꾸준히 힘쓰고 있는가?

일반 서적, 신앙 서적을 균형 있게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고,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하자.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운동을 하자.

여덟 번째, 평신도와의 관계 점검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 성경 말씀을 성실히 준비하는가? 그들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고 있는가?

이상과 같은 8가지 원칙의 자가 체크 리스트를 통해 본 연구자는 자가 건강한 목회자로 깨어 있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는 목회자의 지속적인 성장이야말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목회자만 아니라, 건강한 평신도들이 필요하다. 이제 다음 절에서 건강한 평신도를 위한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제 2 절 건강한 평신도를 위한 방안

본 절에서는 건강한 평신도를 위한 방안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한 영성 함양과 영감 있는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및 소그룹 활성화와 사랑의 이 중계명 실천을 논할 것이다.

1.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한 영성 함양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신자가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신자의 기본은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도록 하는 일이다(벧전 2:2).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자라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성경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본 연구자가 <표 4>와 같은 내용의 ‘성경읽기 자가 진단지’로 두 교회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보았다(2009년 역촌교회, 2010년 꿈이있는교회).

설문 응답자 167명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귀하는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습니까? ① 전혀 안 본다(19명) ② 한 달에 한 번 정도(19명) ③ 일주일에 한 번 정도(21명) ④ 일주일에 두세 번(57명) ⑤ 매일(51명). (2) 성경을 읽게 되면 몇 분 정도를 할애하십니까? ① 5분 또는 그 이하(23명) ② 15분 정도(43명) ③ 30분 정도(38

명) ④ 45분 정도(49명) ⑤ 한 시간 또는 그 이상(14명). (3)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이유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성경은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성경은 혼동만 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③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점점 흥미가 없어져 읽는 것을 포기했다 ④ 성경을 읽으면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⑤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 ⑥ 성경은 도대체가 지루하다 ⑦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⑧ 기타.

<표 4> 성경읽기 자가 진단지

질의	응답
(1) 귀하는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습니까?	① 전혀 안 본다. ② 한 달에 한 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④ 일주일에 두세 번 ⑤ 매일
(2) 성경을 읽게 되면 몇 분 정도를 할애하십니까?	① 5분 또는 그 이하 ② 15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45분 정도 ⑤ 한 시간 또는 그 이상
(3)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이유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성경은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성경은 혼동만 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③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점점 흥미가 없어져 읽는 것을 포기했다. ④ 성경을 읽으면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⑤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 ⑥ 성경은 도대체가 지루하다. ⑦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⑧ 기타.

설문 조사 결과는, (1)문항에서는 응답자의 69퍼센트가 성경읽기를 한 주간에 2-3번 이하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문항에서는 성경읽기 시간 할애를 30분 이하로 갖는 경우가 62퍼센트에 달했다. (3)문항에서는 성경읽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로는 39퍼센트가 이해와 흥미의 부족을, 29퍼센트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신자들의 성경읽기 생활은 매우 빈약하며, 시간적으로도 매우 짧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들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굶으며, 스스로 영적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그들의 영적 성장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히 5:13-14).

거듭난 이후 신자들의 신앙의 목적은 영적 성숙에 있어야 한다. 거듭남은 영적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했다면 자라가야 하는 것이다.¹⁴⁶⁾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인격과 생활면에서 성숙해지도록 하는 데 있다.”(딤후 3:16-17)고 말한다.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미성숙에서 온다. 성숙한 신자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말씀을 먹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런 확신 가운데, 상처와 아픔,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삼송중앙교회에 2009년 부임한 해부터 무엇보다도 ‘말씀 사역’에 주력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한 일이 ‘성경 읽기 사역’이다. 이 사역을 중요시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결국 신자들의 변화의 문제요, 영성의 문제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영성은 신앙인으로 포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formation)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영성 형성은 지배적인 세상 질서의 가치관에 순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자아실현 차원의 과정이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되어 감’(christening)과 ‘그리스도로 옷 입음’의 과정이다. 영성 형성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다.¹⁴⁷⁾ 이러한 영성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며, 영성의 과정은 성경이 그 중심을 차지하며, 영성의 목표

146) 이용세, *개인성경연구*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17-19.

147) Kenneth Leech, *영성과 목회*, 최승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9.

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¹⁴⁸⁾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신자들이 성경에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하고(고전 4:6), 말씀이 신자들 안에 풍성하게 기하도록 해야 하며(골 3:16),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도록 도와야 한다(딤후 1:9).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 사역의 우선적인 초점이 말씀 중심의 신앙과 영성 함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삼송중앙교회는 건강한 평신도들을 위한 방안으로 성경 읽기 사역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가. 성경읽기 사역

본 연구자는 먼저 성경읽기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다. 즉 목회적인 이유로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다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이다. 그러기에 성경읽기란 신자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성경읽기가 중요한 성경적 이유는,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신 17:19-20). 성경의 신앙부흥 역사의 공통점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대하 34:18-19).¹⁴⁹⁾ 무엇보다 초대 교회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였다. 초대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의 흥왕함이 있었다(행 6:7; 12:24; 18:20). 이런 성경적인 이유로 보건대 성경읽기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시대적으로 볼 때도,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로 규정되는 현 시대가 객관적 권위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그 메시지에 동의하기로 결정하는 것 외에는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현 시대 사람들은 성경의 유일하고도 객관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일상 속에서 성경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¹⁵⁰⁾

한국교회 신자들의 개인적 말씀생활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중 7명은 주중에 성경을 거의 보지 않는다.

148) Leech, *영성과 목회*, 10.

149) Walter C. Kaiser, Jr., *성경에 나타난 신앙부흥의 영적 원리들*, 김유배 역 (서울: 나침반사, 1989), 105-108.

150) Jackman, *왜, 성경인가?*, 22-24.

그나마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도 읽기 시간은 15-30분 정도로 매우 짧다. 그나마 이들이 성경읽기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석한 신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일 출석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볼 때 그 결과는 더 심각할 것이라 생각된다. 데이비드 잭맨은 현대 기독교회가 직면한 도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사도 시대가 저물어갈 때, 그들의 계승자들이 진정한 사도적 기독교를 고수하고 전파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당대의 지배 문화에 편승해 타협의 길로 갈 것인지를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도전 역시 교회에 성경을 회복하고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집중된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성령이 사용하시는 수단은 성경이다.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미디어와 자본과 소비주의의 목소리가 만연한 우리 문화 속의 무서운 소용돌이 속으로 속수무책 빨려들고 말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우상들로 만연한 사회의 일시적인 가림막 정도의 역할로 전락할 것이다.¹⁵¹⁾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으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책이다. 이 성경을 통해 모든 계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므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경은 사람들에게 의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이해와 해석 원리를 숙지하여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매일 생활 속에서 건강한 성경적 진리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된다. 그런 방식은 개인적인 성경공부, 소그룹의 성경읽기, 강해적 설교 듣기 등이다. 삼송중앙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중이다. 이는 매일 성경 읽기가 평신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본 연구자의 확신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경읽기에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1년에 최소 세 번 성경 66권을 읽을 수 있도록 진도표 <표 5>를 만들어 주고, 읽기, 질문하기, 해석하기, 성경의 맥 잡기 등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도록 가르쳤다.

151) Jackman, *왜, 성경인가?*, 288.

<표 5> 60/120일 성경 읽기 점검표

<input type="checkbox"/> 1일: 창1-20	<input type="checkbox"/> 21일: 왕하16-25, 대상1-5	<input type="checkbox"/> 41일: 겔26-40
<input type="checkbox"/> 2일: 창21-35	<input type="checkbox"/> 22일: 대상6-25	<input type="checkbox"/> 42일: 겔41-48, 단1-5
<input type="checkbox"/> 3일: 창36-50	<input type="checkbox"/> 23일: 대상26-29, 대하1-20	<input type="checkbox"/> 43일: 단6-12, 호1-14, 을
<input type="checkbox"/> 4일: 출1-15	<input type="checkbox"/> 24일: 대하21-36	<input type="checkbox"/> 44일: 암, 읍, 은, 미, 나, 합, 습
<input type="checkbox"/> 5일: 출16-35	<input type="checkbox"/> 25일: 스1-10, 느1-10	<input type="checkbox"/> 45일: 학1-2, 숙1-14, 말1-4, 마1-5
<input type="checkbox"/> 6일: 출 36-40, 레1-15	<input type="checkbox"/> 26일: 느11-13, 에1-10, 욥1-10	<input type="checkbox"/> 46일: 마6-20
<input type="checkbox"/> 7일: 레16-27	<input type="checkbox"/> 27일: 욥11-40	<input type="checkbox"/> 47일: 마21-28, 막1-5
<input type="checkbox"/> 8일: 민1-15	<input type="checkbox"/> 28일: 욥41-42, 시1-40	<input type="checkbox"/> 48일: 막6-16
<input type="checkbox"/> 9일: 민16-30	<input type="checkbox"/> 29일: 시41-80	<input type="checkbox"/> 49일: 눅1-10
<input type="checkbox"/> 10일: 민31-36, 신1-10	<input type="checkbox"/> 30일: 시81-110	<input type="checkbox"/> 50일: 눅11-24
<input type="checkbox"/> 11일: 신11-30	<input type="checkbox"/> 31일: 시111-150, 잠1-5	<input type="checkbox"/> 51일: 요1-10
<input type="checkbox"/> 12일: 신31-34, 수1-15	<input type="checkbox"/> 32일: 잠6-31	<input type="checkbox"/> 52일: 요11-21, 행1-5
<input type="checkbox"/> 13일: 수16-24, 삿1-5	<input type="checkbox"/> 33일: 전1-12, 아1-8, 사1-5	<input type="checkbox"/> 53일: 행6-20
<input type="checkbox"/> 14일: 삿6-21	<input type="checkbox"/> 34일: 사6-30	<input type="checkbox"/> 54일: 행21-28, 롬1-10
<input type="checkbox"/> 15일: 룻1-4, 삼상1-15	<input type="checkbox"/> 35일: 사31-50	<input type="checkbox"/> 55일: 롬11-16, 고전1-16
<input type="checkbox"/> 16일: 삼상16-31	<input type="checkbox"/> 36일: 사51-66, 렘1-5	<input type="checkbox"/> 56일: 고후, 갈, 엡
<input type="checkbox"/> 17일: 삼하1-15	<input type="checkbox"/> 37일: 렘6-25	<input type="checkbox"/> 57일: 빌, 골, 살전, 살후, 딤펴전, 딤펴후
<input type="checkbox"/> 18일: 삼하16-24, 왕상1-5	<input type="checkbox"/> 38일: 렘26-45	<input type="checkbox"/> 58일: 딤펴, 몬, 히, 약
<input type="checkbox"/> 19일: 왕상6-20	<input type="checkbox"/> 39일: 렘46-52, 애1-5, 겔1-5	<input type="checkbox"/> 59일: 벧전, 벧후, 요1,2,3, 유, 계1-5
<input type="checkbox"/> 20일: 왕상21-22, 왕하1-15	<input type="checkbox"/> 40일: 겔6-25	<input type="checkbox"/> 60일: 계6-22

또한 성경읽기 사역을 통해 전 교인을 대상으로 3일간 성경 이해에 대한 개론 강의, 성경읽기 실습 등의 진행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고¹⁵²⁾, 소그룹으로 매주 1회 모여 성경의 각 권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읽기 방법은 내용 살피기, 해석 질문하기¹⁵³⁾, 기도와 적용 찾기 등의 3단계로 갖도록 하였다. 소그룹 성경읽기 반을 화요일 낮, 밤, 토요일 반으로 모집하여, 2013년 봄 학기(12주)에는 5명, 가을 학기(12주)에는 22명, 2014년 봄 학기에는 26명, 가을 학기에는 19명이 본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 신자들은 성경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에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별히 평신도 리더십 훈련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 성경읽기 사역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할수록 신자들의 신앙과 삶이 확연히 달라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결실을 본 것이다. 이러한 결실의 배경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하고 도전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그것이 예배 설교의 장이라 생각한다.

나. 설교 사역

본 연구자는 삼송중앙교회에 부임한 이래 말씀 중심의 신앙의 토대를 설교를 통해 강화해 왔다. 설교에 있어 두 가지의 강조점은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변화와 성숙이다. 그래서 적어도 본 연구자의 설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는 설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설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세윤은 많은 교회들이 신앙을 이성과 동떨어진 것으로 신비화해서 지성인 신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¹⁵⁴⁾ 그러기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의 선포는 절실한 문제이다. 사

152) 이런 방식으로 본 연구자의 삼송중앙교회를 포함하여 역촌교회, 꿈이있는교회, 서호교회, 인천중앙교회, 명지대 실로암 동아리 등에서 실시하였다. 삼송중앙교회에서는 2009년에는 전교인 대상으로 성경읽기 부흥 사경회로 3일간 가졌고, 2010년에는 한 해 '성경읽기 행진' 프로그램과 '101일 말씀 기도 전무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53) Bernard Ramm, *성경해석학*, 정득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4), 87-94, 140-141. 이 책을 참고하여 활용한 질문 형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석의 질문으로는, 성령께서 본문을 통해 원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역사적 상황, 문맥적 상황은 무엇인가 이며, 다음으로, 관찰 질문으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뜻)은 무엇인가이다.

154) 김세윤,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4.

도적 복음 선포의 양식들을 따라, 기독교적, 구원론적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복음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윤리적 삶의 요구를 깨닫도록 하는 설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매주 선포된 말씀에 대해 신자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촉구하는 초청과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근거로 소그룹(구역)으로 모여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구체적인 적용을 나누는 모임을 갖도록 했다. 이런 방식은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 중심의 신앙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보여준 바울이 한 설교의 특징을 따른다. 먼저 바울의 설교는 강해적 설교였다. 즉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가는 설교였다(행 17:2-3). 이런 방식에 따라 부임 이후 계속해서 매 예배 때마다 한 성경을 택해 강해 설교를 해 왔다.¹⁵⁵⁾ 또한 바울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였다(행 17:3). 모든 성경의 주제는 세상의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이다.¹⁵⁶⁾ 그렇다면 설교자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 본문(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이다. 그렇다고 모든 본문에서 역지로 그리스도를 끌어내려는 알레고리적 해석은 피해야 한다. 너무 서둘러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설교자에 있어 성경 계시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설교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할 때마다 바울의 원칙을 따르되 죄와 은혜가 잘 드러나는 설교를 하고자 힘썼다. 즉 인간의 문제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해답인 은혜를 드러내는 설교이다. 바울이 행한 설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복음전도적 설교였다(행 17:4). 본 연구자는 출석 신자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50여명으로 줄어든 침체된 교회에 부임을 하였다. 무엇보다 신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라 생각했다. 복음이라는 단순한 설교야말로 신자들의 첫 사랑을 회복하고, 신자들을 하나 됨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교회 안

155) 본 연구자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균형을 이룬 설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주일 오전은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 중이며, 주일 오후에는 ‘신명기 강해’를 계속 해 오고 있다. 새벽 기도회에는 ‘복음서 강해’를 하고 있고, 금요기도회는 ‘시편 강해’를 하고 있다.

156) Graeme Goldsworthy,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재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2), 52.

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침체된 교회를 전도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했다. 서로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는 신자들을 각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설교여야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바울의 설교 원칙을 따라 복음전도적 설교를 힘써 왔다.

이와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1단계는 본문 주제 및 중심 아이디어를 파악하기¹⁵⁷⁾, 2단계는 본문 개요와 논리적 순서 작성,¹⁵⁸⁾ 3단계는 본문 석의 및 본문 정리,¹⁵⁹⁾ 4단계는 서론과 결론(적용) 구성,¹⁶⁰⁾ 5단계는 설교에 인용할 예화 수집, 작성한 원고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마지막 단계이다. 본 연구자는 설교 사역을 통해 신자들의 좋은 반응을 들어 왔다. 그런데 설교자 자신인 본 연구자는 설교할 때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된다. 본 연구자에게 금요기도회의 개인기도 시간에는 주로 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본 연구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고 있다. 부임 이후 지금까지 신자들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위해 힘써온 성경읽기와 설교 사역은 신자들의 변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는 건강한 평신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 말씀 중심의 신앙은 필수적이라는 확신한다. 또한 평신도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도록 하도록 동기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감 있는 예배에 있다. 이것을 다음 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57) 본 연구자는 가급적이면 본문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로 본문의 단어를 통해 아이디어를 찾는다.

158) 본 연구자가 설교의 논리적 틀을 잡을 때, 주제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 대지 상호간의 연결고리를 위해, 그리고 설교자와 청중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가장 적합한 설교 언어를 찾고자 고민한다. 개요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를 때고 있고, 점진적이거나 꼬리물기 식의 유형을 따라 잡는다.

159) 본문 석의는 노튼 스테렛의 *성경해석의 원리*의 지침대로, 문맥, 어휘, 문법, 저자 의도, 배경 등을 살피고, 그 내용을 근거로 본문의 뼈대를 구성한다. T. Notton Sterrett, *성경해석의 원리*, 성서유니온편집부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1978) 참고.

160) 설교의 서론은 주로 신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나, 설교 주제의 중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설교의 결론은 다양한 시도를 한다.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식이거나, 주제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들을 제시하면서 도전과 격려, 그리고 초청과 결단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2. 영감 있는 예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신자가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신자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영감 있는 예배가 필수적이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¹⁶¹⁾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영감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상호 관계적인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자는 계시와 응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예배의 본질을 붙잡으려 애를 쓴다. 이를 위해 초대 예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말씀과 성만찬’을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 왔다.

가. 예배의 갱신

현대 예배 갱신 운동의 흐름은¹⁶²⁾ 초대 교회의 예배적인 삶과 정신을 회복하는 것, 목회자 중심에서 회중 참여의 확대, 공동체성의 회복, 성만찬의 중요성의 재발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배 갱신 운동 가운데 등장한 용어들을 살펴보면, 일명 ‘구도자 예배’와 ‘은사적 예배’가 있다.¹⁶³⁾ 구도자 예배는 예배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에 맞추려는 시도로, 회중을 위해 베풀어지는 ‘전도 집회’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이런 예배는 초점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데 있어, 회중의 참여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은사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실재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자유롭고 축제적인 분위기로 드러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교화적인 예배’나 ‘목적 중심적 예배’도 있다.¹⁶⁴⁾ 교화적 예배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 많은 경우 이런 접근이 많다. 이런 예배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예배 참여를 동기 부여할 때, 이런 예배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적 중심

161)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조기연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25.

162) Ibid., 134-138.

163) Ibid., 139-146.

164) Reeder,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197-199.

적 예배는 목회자가 설정한 어떤 사명이나 비전을 달성하려는 데에 초점이 있다. 물론 이런 요소는 필요하지만, 이런 예배 역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예배의 일차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놓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순서를 설교 중심에 맞추는 예배가 될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이 예배 운동에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자는 건강한 교회의 영감 있는 예배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인식아래 삼송중앙교회에 부임 이후, 초대 교회의 예배의 구성 요소를 근거로 예배 방법의 변화를 시도했다. 현재 예배 순서는 경배와 찬양 - 신앙고백 - 찬송 - 회중기도 - 특별 찬양과 봉헌기도 - 성경봉독 - 찬양 - 말씀 선포(성만찬) - 성도의 교제 - 찬송 - 축도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 예배의 구성

초대 교회의 예배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의 요소이다. 초대 교회의 예배는 구약성경의 율법 낭독과 강해로 이루어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주된 요소였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약이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이었다(행 17:2-3). 그래서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식이었다.¹⁶⁵⁾ 김세윤은 사도들이 구약과 예수의 가르침을 근거로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사용해 복음을 선포했다고 강조한다. 즉 메시아라는 칭호를 통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선포, 회개의 요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촉구, 실존적인 구원의 그림 언어들인 의인 됨, 화해 됨, 성화 됨 등이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복음 선포는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인 선포였다고 말한다.¹⁶⁶⁾ 이렇게 초대 교회 예배는 신앙 고백적이며, 교리적인 성격의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이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송중앙교회는 초대 교회의 영감 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 말씀은 '강해적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신약, 구약의 균형 속에서 교회력을 고려한 복음적 설교를 계획하여 추진해 왔다.

165) Martin, *초대 교회 예배*, 116-118.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의하면, 바울은 그의 편지들이 공중예배에서 읽혀지길 원한다고 말한다. 랄프 마틴은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전에, 바울의 편지가 주의 명령으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사용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166)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51-210.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만찬의 요소이다. 초대 교회는 성만찬의 빵을 나누는 의식으로 시작해서, 공동 식사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잔을 나누는 의식이 거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¹⁶⁷⁾ 이 요소는 식사로서의 만찬(행 2:42, 46)과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식사(고전 11:17-29)가 연결된 것이었다. 서울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인 조기연은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가 핵심이며,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과 연합, 동시에 신자 간의 교통과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⁶⁸⁾ 그런 면에서,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 구성에 있어 '성만찬'의 요소를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송중앙교회는 일 년 2회 정도의 성만찬 회수를 일 년 6회로(격월) 성만찬의 요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도와 찬양의 요소도 중요하다. 초대 교회의 예배 속의 기도에는 주의 기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신자들과 사역자를 위한 기도 등의 공동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었다(마 6:9~13; 18:19~20; 행 2:46; 4:23~31; 엡 6:19; 빌 4:6; 골 4:2~3). 따라서 삼송중앙교회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다양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예배 찬양은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와 주님이신 예수에 대한 찬양이 중심이었다(눅 2:14; 엡 5:14; 딤후 3:16; 빌 2:6~11; 골 1:15~20; 히 1:3). 이에 삼송중앙교회는 회중 전체, 준비된 몇 신자들의 준비된 특별 찬양 등 많은 찬양의 시간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예배는 신앙고백의 요소도 있었다. 그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와 같은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승리, 그리고 만유의 주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상세하게 포함하기도 했다.¹⁶⁹⁾ 삼송중앙교회는 예배 순서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반응, 초청 등을 통해 회중 참여의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대로, 초대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의 가르침, 성만찬을 통한 연합과 교통, 하나님의 축복과 파송 등의 요소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요소가 지향하는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만남'이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성찬이 균형을 이루는 예배인 것이다. 삼송중앙교

167)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8.

168) Ibid., 69-86.

169) Martin, *초대 교회 예배*, 99-108.

회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계속 갱신의 과정을 가고 있다. 이에 ‘말씀 선포’ 뒤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 ‘성도의 교제’ 뒤에 ‘파송의 말씀, 주의 기도’를 포함하는 예배로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 주중, 주일 예배 참여와 경건 생활 실천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 예배, 소그룹 예배 등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 예배의 차원에서 경건 생활을 위해 묵상(QT) 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배 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1) 묵상 학교 교육 내용

(가) 성경 31,173구절 중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인가?

예) 천로역정의 존 번연(요 6:37),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롬 1:17),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사 54:2)

(나) 당신의 삶을 좌우하는 최고의 권위는 무엇인가?

예) 경험, 다른 사람의 의견, 편리함, 기타

(다) 경건의 시간이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매일 정기적,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요,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이다.

(라)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영생의 목적 때문이요(요 17:3), 주님의 참 제자 됨을 나타내기 때문이요(요 8:31-32), 변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딤후 3:14-17).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야 한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묵상의 열쇠이다.

(바) 묵상, 적용의 요소(십자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며 적용한다.

(사) 실습 (본문: 마태복음 20:1-16)

먼저 짧은 기도를 드린다(시 119:18). 다음으로 본문을 정독하고 묵상하면서 하나

님, 세상/죄, 다른 사람, 나 자신에 대해 배운 바를 적으라. 그리고 깨달음과 실천할 사항(적용)을 기록한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마침 기도로 간구와 중보기도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마음과 열매를 위한 삶의 기대를 가지고 생활 현장으로 나아간다.

(2) 예배 학교 교육 내용

<1-2과>

(가)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 사랑 = 예배 /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기 위함

(나) 예배란? 마 4:10; 요 4:23-24

(다) 예배의 표현들

찬송 엡 5:19 / 헌신 롬 12:1-2 / 기도 시 95:6 / 말씀을 들음 요 17:17

헌금 고전 16:1-2 / 세례 롬 6:3-4 / 목상 합 2:20 / 성만찬 고전 11:23-26

(라) 우리 교회의 예배 스타일

찬양 시 122:1 / 영감 사 40:31 / 준비 엡 4:11-12

(마)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

경건한 마음 시 4:3 / 주님을 뵈고자 하는 마음 요 12:21

회개하는 마음 눅 18:13

(바) 예배 시간, 복장 문제

<3-4과>

(가) 예배의 성경적 의미

단어의 의미: '프로스쿠네오'

(나) 관련 성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의 모습 마 8:2; 마 14:33; 마 20:20; 요 9:37-38

부활 이후의 예배 받으시는 모습 마 28:9, 17

인간 이외의 대상 곧 귀신들과 천사의 예배 막 5:6-7; 히 1:6

(다) '절하다'의 의미

인간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절을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공경한다는 뜻이다. 행 10:25-26; 계 19:9-10; 계 22:8-9

(라) 예배의 핵심과 원동력

하나님을 옹고 참되이 높이고 받들어 섬기려는 정신 및 태도

(마) 예배의 정신

의식적 예배(ceremonial/ritual worship)

마 2:1; 행 13:2; 고전 10:20-21; 14:24-25; 계 4:10-11; 계 19:4; 요 4:20-24

일상생활적 예배(daily life worship)

롬 12:1; 빌 4:18; 히 13:15-16; 골 3:23-24

(바) 예배자의 내면적 자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문제

예배, 활동 등이 동양적인 문화나 행습에만 익숙해진 사람들

(사) 예배 순서 담당자들의 심리 의식

(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구상

예배 정신, 예배순서 이해, 사적 예배 통한 충만한 심령훈련

(자) 예배 장애 요인 극복

이런 예배 갱신의 시도들은 삼송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건강한 평신도들을 위해 영감 있는 예배 못지않게 꼭 있어야 중요한 요소는 올바르고 체계적인 기독교 교육이다. 다음 항에서 이를 살펴 볼 것이다.

3.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신자가 잘 자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한다는 신자들 가운데에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다. 이는 교회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결국 그 원인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신자들을 잘못 길러내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못 길러내고 있기 때문이며, 가정에서는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길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각 교회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가르침의 표준과 통일성이 없는 현실이다. 교단마다, 목회자마다 성경해석의 다양성으로 그 해법을 찾기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이단들의 공격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음

과 같은 기독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가. 기독교 교육의 과정

삼송중앙교회의 교육의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 1단계는 신앙입문 과정으로 신앙의 기초를 놓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복음과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 여기서는 새로 등록된 신자들을 대상으로 총 4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1주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구원의 의미, 구원의 방법, 구원의 삶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구원의 초청과 확신의 시간을 갖는다. 2주차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성경의 목적, 성경의 유익, 성경을 섭취하는 삶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한다. 3주차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 기도란 무엇인가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기도의 정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실제적인 기도의 삶을 위해 도움을 준다. 4주차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교회의 정의,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사명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교회 생활과 관련한 비전과 역할을 도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을 마친 신자들은 구역 소그룹과 기관 소그룹에 들어가 생활 할 것을 권면한다. 4주차의 과정을 매주 마다 진행하고 있어서, 종종 해당하는 내용을 빠뜨린 신자들이 그 내용을 다음 순서에 참여하여 4주를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있다. 매주 4-10명 정도가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고, 담임목사가 진행한다는 면에서 새 신자와의 관계 형성과 그들의 신앙, 은사 등의 파악이 용이한 상황이다. 드문 일이지만 이단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제 2단계는 한 몸 공동체 과정으로 신앙의 성장을 돕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묵상 및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도우며,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성경 일독학교는 구약 12주, 신약 12주로 성경 각 권에 대한 개론 강의와 함께 일 년에 한번 성경을 읽도록 마련된 과정이다. 신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중 주야 반과 주말 반을 열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균

7-20명 정도가 각 반에서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다.

경건생활 학교는 일명 '묵상학교'로 총 4주 정도의 묵상 훈련과 실습을 통해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자들로 세우는 과정이다. 사랑의 학교(Love School)는 7주 과정으로 한 몸 공동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새 가족 양육 반을 마친 신자들을 중그룹으로 모아 주말에 실시하며, 러브스쿨 1은 "기독교는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는 상관없나?"라는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러브스쿨 2는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돌아가셨는가?"라는 주제로, 러브 스쿨 3은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러브 스쿨 4는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러브 스쿨 5는 "성령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러브 스쿨 6은 "어떻게 악을 대항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가?"라는 주제로, 러브 스쿨 7은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축복(20분), 영상(5분), 대강의(25분), 소그룹(25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 3단계는 제자화 과정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다. 먼저 제자훈련은 24주 동안, 1단계(10주), 2단계(14주)로 진행한다. 1 단계는 복음, 구원의 확신, 구원 간증, 믿음으로 얻는 9가지 축복,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10가지 성경적 증거, 경건의 시간, 죄에 대한 태도, 교회의 중요성, 교제의 중요성, 가치 있는 삶 등의 주제로 강의 및 과제 현장 실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 단계는 수레바퀴의 삶, 말씀의 손, 기도의 손, 듣기, 말씀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주재권, 암송, 순종, 응답받는 기도, 전도, 간증, 제자도, 우선 순위, 양육의 중요성 등의 주제로 강의 및 과제 현장 실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내면의 성숙을 위한 교육으로 12주 동안 진행하며, 전도폭발 훈련도 <부록 1>에 수록된 것과 같이, 세상의 증인의 삶을 위한 훈련으로 5주 강의 및 실습 7주 현장 실습 등으로 12주 동안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연구반은 24주 동안, 제자훈련에 대한 안목으로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과정이다. 훈련자의 준비와 과정(1-4장), 훈련자의 가르침(5-7장), 제자를 위한 사역과 시범과 실습(8-10장), 제자 훈련과 계시(11-15장), 제자 훈련과 자기 포기(16-20장), 제자 훈련

과 십자가(21-28장)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안목과 자세를 갖도록 가르치며 훈련한다.¹⁷⁰⁾

제 4단계는 리더십 과정으로, 교회의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깊이 있게 해 주며, 공동체와 선교 현장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기독교 교리 연구반은 8가지 핵심 진리인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 성령, 교회, 재림 등의 주제를 총 24주 과정으로 진행한다. 성경연구방법 과정은 관찰, 해석, 적용의 3 단계에 관한 세밀한 내용의 연구와 실습으로 12주 동안 진행한다. 로마서 연구반은 각 장, 구절, 단어 등을 장별로, 문맥 단위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용으로 24주 과정으로 진행한다. 소그룹 인도법은 준비 과정, 인도의 기술 등의 내용으로 6주 과정으로 진행한다. 중보기도학교는 중보기도의 출발점,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열매, 중보기도의 교회적용 등의 내용으로 6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교육을 마친 신자들을 중심으로 중보기도 팀을 구성하여 기도 사역에 참여하게 한다.

나. 기독교 교육의 목표

하버드대학교 신학부 교수였던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은 교육은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교육 과정 자체의 본질 때문에 우선적인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가르침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가르침의 내용에 집중해 왔음을 지적했다.¹⁷¹⁾ 그의 지적대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 그 이상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그저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에 급급한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새롭고 흥미롭게, 종종 실망스럽고 애매한 방식으로 삶과 리더십을 보도록 도전한다.¹⁷²⁾ 바울은 관계 중심적이었다(롬 14:1-2). 그리고 사랑의 섬김의 삶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리더였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기보다 사람들을 도울 방법

170) 삼송중앙교회 <마태복음 연구반>에서는 제자훈련의 단계를, 접촉(막 16:15), 회심(고후 5:17), 양육(골 2:6-7), 훈련(약 3:13-14), 재생산(마 28:19) 등으로 설명해 나간다. 제자 훈련자의 표지로는 마태복음 16:21-28을 근거로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그러기에 이를 위해 훈련자는 예수님처럼 제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훈련자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의 중요한 표지라고 가르친다.

171) Henri J. M. Nouwen, *Creative Ministry* (New York: Doubleday, 1978), 4-5.

172) Richard S. Ascough, Charles A. Cotton, *Passionate Visionary* (Peabody: Hendrickson, 2005), 29.

을 찾는 자였다.¹⁷³⁾ 그러므로 교육의 열쇠는 내용 못지않게, 교육하는 자의 자질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가르치기를 멈춰야 한다.¹⁷⁴⁾ 교육에 있어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생 학습과정을 지속해 나갈 학생들이 되도록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적어도 본 연구자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점이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침을 받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로의 성장과 도전이 항상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이며,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본 연구자는 듣는 교육, 보는 교육이 아니라, 행하고 적용하는 교육이 되도록 힘쓴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가 교육의 자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 자신이 내용을 알고, 확신하고, 사용해보고, 효과를 본 것을 전달한다는 것이다.¹⁷⁵⁾

다. 기독교 교육의 내용

기독교 교육의 출발은 '성경이요 복음'이다. 성경은 곧 복음이다. 성경은 모든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체하도록 이끈다. 또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한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 및 윤리를 정립하지 못하여 세상에서 올바른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은 "복음은 인간 존재와 소유 전체를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려

173) Caliguire, *사도 바울의 리더십 비밀*, 176.

174) Howard G.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17. 헨드릭스는 훌륭한 교사의 기준은 FAT 즉 성실하고(Faithful), 유용하고(Available),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Teachable) 사람이라고 말한다.

175) Wilhoit, Ryken,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비결*, 72-75. 교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열정이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열정, 진리를 향한 열정, 연구와 학습을 향한 열정, 배운 것을 함께 나누려는 열정, 실제로 적용하려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등이다.

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몰아간다.”¹⁷⁶⁾고 말했다. 즉, 자기 부인의 복음인 것이다. 다시 말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저마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현장은 교실이 아니라, 세상이어야 한다.

삼송중앙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됨을 확신하며, 자신의 생애를 송두리째 걸만한 사명을 발견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삼는’ 교육이 필요하다. 데이비드 플랫은 이런 삶을 위해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얼마나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그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¹⁷⁷⁾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갈구하는가? 한 점 망설임이나 후회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는 누구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믿는가? 주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는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제자를 삼으며 살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적어도 복음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에 관한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인간에 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성령에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진리, 삶에 대한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양육과 훈련을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눈높이에 맞춰 교재 개발과 효과적인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빌 4:9)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할 때 삼송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

176) David Platt, *래디컬*, 최중훈 역 (서울: 두란노, 2011), 61.

177) Ibid., 297.

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자는 건강한 평신도들을 위해 올바르게 체계적인 기독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는 배운 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경험해야 할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항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소그룹 활성화와 사랑의 이중 계명 실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신자가 건강해야 한다. 건강의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팎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다. 그래서 건강한 신자의 기본은 공동체성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일이다. 주변 목회자들에게서 최근 교회 안의 각종 소그룹 모임이 퇴보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신자들을 주중에 모아 어떤 모임들을 진행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부임할 때 삼송중앙교회 역시 이런 문제에 예외는 아니었다. 소그룹으로는 유일하게 '구역' 소그룹이 전부였다. 4개의 교구와 11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였다. 모임의 내용은 예배로 이루어졌고, 말씀의 전달은 목회자와 권사가 강사가 되어 담당하고 있었고 교단에서 보급하는 구역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강사 중심의 모임이 되었고,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에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가족과 친분 위주의 집단주의를 없애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공동체성의 회복과 사랑의 이중 계명의 실천의 장으로 소그룹이 절실함을 느꼈다.

가. 구역 소그룹의 활성화

본 연구자는 초대 교회의 소그룹에 착안하여 소그룹의 철학을 기초로 하는 '가정 교회'의 원리를 '구역 모임'에 접목하여 변화를 주고자 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가정에서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했고, 서로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¹⁷⁸⁾ 따라서 삼송중앙교회 구역의 모임 방향은 어느 가정에서든 모임이 가능한 7-12명으로 정도로 이루어진 소그룹을 구성하였다. 또한

178)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72.

초대 교회는 구성원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심화된 가족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구조였다. 즉,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과 상호 협력, 상호 이해의 관계를 높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알게 되므로 구성원들의 은사가 분명하게 발견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원형에 따라, 삼송중앙교회의 구역은 연령 층과 거주하는 지역성을 고려해 구역 조직을 재편하였다.

초대 교회의 소그룹의 특성 가운데는 ‘공동 식사’ 교제를 통해 구성원들이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성도들 간에 가족애적인 사랑을 나누게 하여 하나 됨이 실제로 일어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¹⁷⁹⁾ 초대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과 서로들 안에서 누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즐거움이 있었다.¹⁸⁰⁾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질은 새로운 신자들이 유입되는 것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일상생활의 일들을 모임에 합쳐 넣었다. 그들의 모임에는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그곳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구성원들의 삶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물질적, 재정적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개입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공동체성은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였고 선교적인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교회 모임을 일상적인 생활과 관심사로부터 벗어나는 행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만약 일상적인 관심사나 더 폭넓은 대중적 관심사들을 끌어들이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다루지 않는다면 교회는 원래 되어야 하는 것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개혁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제’라고 보았다.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면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모범을 보였듯이, 신자들 간에 서로의 발을 씻기려는 섬김의 회복이

179)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139-140.

180)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77-78. 가정에 있던 교회야말로 초기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려고 만났던 곳이었다(행 2:42). 교회 건물들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친교 없이 행하여지는 예배란 냉랭하면서도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교회의 좌석들은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도록 배열된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서로간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자 서로를 볼 수 있어야만 한다. 요즈음의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친교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친교실’이라고 부르는 방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신자들은 자주 진정한 교제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삼송중앙교회는 고정적인 장의자 대신 이동성이 편리한 의자들을 사용하며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고 있다.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조직의 기초로서 계급 구조적인 모델을 거부하시고 하향적 섬김의 모델을 제시하셨다. 교회를 조직과 기구로 보지 않는다면 교회 내에 상하 관계 혹은 지배 구조 관계를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며 수평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 각기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부임 후 신자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그룹 명칭은 그대로 하면서,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 모임의 내용에 변화를 주었다. '구역 예배'라는 명칭을 '구역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삼송중앙교회는 초대 교회를 구역의 모델로 삼아(행 2:42-47), 구역 모임 내용을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우리 교회의 구역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 이는 아버지와 그의 자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녀 된 우리의 만형이 되신다(롬 8:29; 엡 1:5). 건강한 구역 소그룹은 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경험한다. 이는 신자 간에 철저한 신뢰와 책임을 지는 관계를 형성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구역이 이런 소그룹이 되도록 힘쓴다. 또한 삼송중앙교회의 구역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 이는 유기적 교제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다.(고전 12:12-26). 건강한 구역 소그룹은 서로의 인생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삶을 공유하는 관계를 경험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정진하는 삶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적당히 주고받고 이해하는 수준의 관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에 대한 사랑에 깊이 헌신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구역이 유기적 교제를 경험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리고 삼송중앙교회 구역은 '성령의 전'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 이는 구역의 영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건강한 구역 소그룹은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소그룹이다.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이고, 진리로 이루어진 가치관이 지배하는 소그룹이다. 이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배경, 출신, 학력, 재력 등으로 입혀진 세상 중심적 소그룹을 거절하는 것이다. 건강한 소그룹은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구역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역이 되도록 힘쓴다. 우리 교회 구역은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며 성령의 역사로 달구어진 희생적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 동시에 강한 지원과 도전을 주

며, 용서와 화해가 꽃 피울 수 있는 소그룹을 지향한다. 한마디로 세상을 치유하는 소그룹이다. 이러한 소그룹의 완성을 위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헌신의 십자가가 있을 때 건강한 소그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런 특징들을 통해 나타난 구역의 가치와 열매는 신자들의 개인과 공동체적 삶 속에서 십자가 신앙, 인격적 교제, 희생,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두고 있다.

이러한 구역의 이미지를 적용하기 위해 구역의 운영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는 교재를 활용하여 갖도록 하고 있다. 첫째로 연합을 위한 환영의 시간으로, 초기 교회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행 2:45)처럼, 구성원 각 사람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다. 둘째로는 예배를 위한 경배의 시간으로, 초대 교회의 ‘하나님을 찬미하기’(행 2:47)처럼, 구성원이 돌아가며,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간증적인 찬양들을 선곡하여 부르고, 찬양 속에서 깨달은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다. 셋째로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의 시간으로, 초대 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행 2:42)처럼 구성원이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주중에 적용한 일들을 나누고, 주일 예배 말씀에 대한 묵상과 재설명, 그리고 실천을 위한 도전을 나누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섬김을 위한 사역의 시간으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기’(행 2:47)처럼,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순종할 목록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로 섬기는 시간이다. 이러한 모임 운영이 가능하도록 1년 2회 구역장 수련회를 <부록 3>과 같은 내용으로 소그룹 리더들을 모아 교육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나. 섬김 소그룹의 사랑의 이중계명 실천

아직까지 많은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소그룹들을 마련하여 사랑의 이중 계명의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삼송중앙교회가 사랑의 이중계명 실천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섬김의 소그룹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미소 아카데미

토요일에 전문성을 지닌 전공자 강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있는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매 학기마다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그룹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미술 교실, 음악 교실, 재미 솔솔 이야기 교실 등이 있다. 또한 성인들을 위해 마련한 피아노 교실, 예쁜 글씨 교실, 핸드 드립 교실, 영어 회화 교실 등이 있다. 특히 핸드 드립 교실은 인기가 많아 현재 5기까지 진행되었다. 3주 과정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약간의 수강료를 받고 진행한다.

(2) 열린 성경대학

주로 성경 각 권을 중심으로 여러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매 학기마다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역 주민 누구라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과목을 열어 놓고 있다. 현재 타 교회 신자들 가운데 소문을 듣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수준 있는 강좌를 위해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3) 삼송 FC 축구 동호회

주일 저녁 6-8시에 은평구민 체육공원 축구 경기장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지역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회원이 계속 늘고 있다. 학생, 청년, 장년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폭넓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축구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정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어, 연령별로 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4) 하미소 갤러리

크리스천 화가들의 작품을 계속해서 전시하고 있다. 각 전시 기간은 2개월 정도이고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마련하여 지역과 교회의 문화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특별히 하미소 아카데미 미술 교실을 통해 그림을 배운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하미소 갤러리 관계자

들과 연계하여 교회가 주최하고, 인근 초등학교가 협찬하는 형식으로 ‘고양시 어린이 미술 대회’를 열어 지역 어린이들에게 예능적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미소 갤러리는 지역 주민들과의 좋은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고, 전도의 좋은 접촉점 역할도 하고 있다.

(5) 다비다 봉사

주일에 신자들에게 주머니 속 천원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재정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천원클럽 재정이 되어 모아진 기금으로 지역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반찬들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기관들을 작은 선물로 위로하고 감사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6) 아버지 학교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5주 과정으로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다. 장소는 본 교회를 포함해 매 기수마다 개설하는 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지역 자체가 워낙 젊은 층들이 많아 가정적으로 미숙하고,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 이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고 홍보해서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 관계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고 있다.

(7) 토비아스 카페

지역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면서, 핸드드립 커피를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고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모금된 수입금 전액은 인근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카페 운영은 교역자들과 자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롭게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카페 메뉴는 핸드 드립 커피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생계 목적으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배려한 것이다. 또한 교회 카페 운영이 상업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필요 공간으로만 활용되기 위해서다. 이런 점들이 삼송중앙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평가받는 이

유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구역 소그룹, 섬김 소그룹의 활동들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그룹들이 지금의 삼송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 방안에 대해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삼송중앙교회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규명하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또한 건강한 교회로 적용이 가능하며 확신할 만한 모델 교회를 선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게다가 오늘날 세속화의 영향으로 교인의 숫자와 실용주의적 방법들에 의해 건강한 교회를 평가하려는 경향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찾아 성경으로 돌아가려 애를 썼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와 본질에서 건강한 교회의 참 모습을 찾아보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공동체이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자들 간의 생명과 순종과 섬김의 관계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공동체이다. 이처럼 교회는 삼위일체적인 본질을 지닌 공동체적 존재임을 통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이 보여주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여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그러기에 이런 사랑의 실천을 저해하는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우상숭배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함을 알았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성을 지닌 연합된 교회이다. 그러기에 한 몸을 위한 상호 신뢰와 상호 섬김을 저해하는 분열주의, 권위주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함도 알았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 이루어진 초대 교회를 본받는 교회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열정적인 전도와

영감 있고 뜨거운 예배, 그리고 헌신적인 양육과 훈련과 섬김의 소그룹 등이 있어야 함을 성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세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시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이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결정하는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목회자의 올바른 목회 철학 정립, 평신도 신학의 정립, 건전한 성경 교육의 실천이다. 그렇다면, 과연 삼송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45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의 갈등과 분열 등으로 교회가 약해지고, 위기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았다. 그 원인은 목회자의 올바른 목회 철학과 평신도의 올바른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여기에 포괄적이고 분명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건전한 성경 교육도 미흡했기 때문임을 알았다. 결국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신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되었다.

삼송중앙교회는 더 이상 흔들리고, 방황할 시간이 없다. 고양삼송지구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다. 이제 건강한 삼송중앙교회를 위한 목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수확은 첫째로, 본 연구자가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성숙한 신자'를 세우는 목회 철학을 분명하게 세웠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고, 공동체성을 이루며, 초대 교회를 본 받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동역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경, 그리고 상담의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예배와 평신도 리더십, 전도를 목회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깨닫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둘째로,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수확은 건강한 삼송중앙교회를 위해서는 목회자인 본 연구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역시 건강한 신자가 되어야 함을 거듭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자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 영성을 함양하도록 성경읽기, 설교 사역에 더욱 힘쓸 것이다. 영감 있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준비하고 교육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체계적이며 수준 있는 기독교 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며, 교제와 양육, 훈련과 섬김의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그리할 때 신

자들은 더욱 건강해 질 것이며 교회도 더욱 건강해 질 것임을 확신한다.

이런 통찰과 이해를 근거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생존 전략을 제안하고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로 성경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강해 설교와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열매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로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사랑의 관계에 헌신된 소그룹을 구성하고 활성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연합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신자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로 복음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를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참된 회심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교회와 관계를 맺고 헌신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전도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열매 맺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목회자는 열정적인 전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제안과 함께 본 논문을 통해서 본 연구자는 최소한 두 가지 영역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첫째로, 기존 교회에 부임하여 사역하게 될 목회자들에게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 방안을 찾는 데 있어 유익한 사례들로 본 연구자의 자료들이 활용되기를 바란다. 둘째로,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서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고, 안으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밖으로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

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초대 교회가 소유했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고 능력과 열매가 가득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가 삼송중앙교회에 부임해 담임목회를 시작한지 5년 정도가 되었다. 이 짧은 기간이 본 논문의 연구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본 연구자와 삼송중앙교회에 주어진 여러 남은 과제들은 논문 이후의 목회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부록 1

삼송중앙 단기 전도폭발 훈련개요

① 예비 모임

- 교재를 나누어 주고, 전체 윤곽을 설명한다.
- 만화로 된 복음 제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참고 교재로 사용하며 “전도용 소책자”를 가지고 전체 복음 제시 개요를 설명한다.
- 강의 진행, 전도 대상자 선정, 기도 후원자 확보 등 설명

② 1주 모임

- 복음 제시의 전체 내용을 숙지시키고, 한 주간 동안 전도할 수 있도록 소책자 사용법을 가르친다.
- 시범 : 소책자로 강의실에서 전체 시범을 보인다.

③ 2주 모임

- 복음 제시 중 첫 번째 다리와 두 번째 다리(서론과 복음 설명) 부분을 숙지하고 시범 연습을 한다.
- 시범 : 강의실에서 부분 시범을 본 후, 각 조별로 실습을 한다.
- 현장 실습을 개인별로 점검해 준다. (시간 60분 할애)

④ 3주 모임

- 복음 제시 중 셋째 다리와 넷째 다리(결신과 즉석 양육) 부분을 숙지하고 시범 연습을 한다.
- 시범 : 부분 시범을 본 후, 각 조별로 실습을 한다.
- 현장 실습을 개인별로 점검해 준다.

⑤ 4주 모임

- 전체 복음제시를 총 복습하고, 예화를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 시범 : 예화에 대한 부분 시범을 본 후, 각 조별로 예화를 연습
- 현장 실습을 1인 2분으로 할애하여 30분에 마친다.

⑥ 5주 모임

- 반대의견 처리와 수시로 만나는 전도의 기회 강의를 한 후, 강의 평가 및 마무리 시간을 갖는다.

- 수료 테스트 : 6명을 1개조로 하여 5분씩 전도시범을 보여준다.
- 시범 내용 : 진단질문,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결신
- 현장 실습을 1인 2분으로 할애하여 30분에 마친다.

⑦ 현장실습

- 5주 과정의 강의실 훈련을 마치면 전도 사역 팀의 주관 하에 개인전도 현장 실습을 5회 이상 가진다.

- 전체 개인전도 현장실습 기회를 적어도 10회 이상 갖도록 하고, 훈련된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전도현장에 파송될 수 있도록 하고 전도 사역 팀 운영을 활성화 한다.

⑧ 수료기준

- 전도 시범 통과
- 개인 전도현장 보고서 : 7장 (7회 개인전도)

부록 2

삼송중앙 구역 교재

● 돌봄의 시간 : 생활 점검 및 격려

지난 주간 성경말씀 통해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자.

● 찬양의 시간 :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새 321장, 통 351장)

● 말씀의 시간 : 사도행전 17장 16-34절

1. 본문 사도행전 17장 16-34절을 함께 읽어보자.

2. 본문은 '아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훈을 전해주는가?

[설명] 아덴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아덴은 어떤 곳이었나? (16절) 그곳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나?

아덴은 학문, 지혜의 신 등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세계의 정치, 교육, 철학의 중심지였을 만큼, 그곳은 철학적, 지성적인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그들을 보며 마음의 분함과 심한 고통을 느꼈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느끼나?

2)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행 17:16 보면, 그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예술적 문화는 과거 우상 숭배가 빚어낸 문화였다. 그들은 철학, 지성을 지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행 17:18 보면, 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잘못된 신관을 가진 그들에게 참 지식을 알려

줬다.

행 17:32,34 보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복음을 믿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대해 조롱하는 자, 믿음의 결정을 미루는 자, 바울의 말을 믿는 자 등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아덴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3. 본문을 통해 느낀 점들을 생각하며 정리해 보자.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과연 내 주변에 우상에 빠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없나?

지금까지 나의 전도를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사람인가?

● 사역의 시간 : 기도제목, 전도대상자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

부록 3

삼송중앙 구역장 수련회 : 우리가 꿈꾸는 구역

①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엡 2:19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가족)이라”

갈 6:10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되”

막 3: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②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서로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③ 우리는 위로자입니다

코이노니아-삶의 나눔, 삶의 참여가 있습니까?

“매마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살아있는 공동체만이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삶의 처방을 쏟게 될 것입니다.”(톰 알렌)

④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당신의 축복의 리스트는 누구입니까?

골 1: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라네” (로버트 뱅크스)

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섬겨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두 가지

방편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엡 4:14-15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선데이 크리스천(Sunday Christian)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Everyday Christian)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빛입니다

⑥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터툴리안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그는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활수칙은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⑦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할 가족입니다

변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 서로의 모습을 대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서로를 향한 용서”입니다. 용서를 위한 삶의 태도는 “서로 친절하고”(크레스토스), “서로 붙잡히 여기고”(부드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자신이 받은 용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⑧ 우리는 서로 수용해야 할 가족입니다

누구라도 기쁘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건강한 목장의 열쇠입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용납했습니다.(롬15:7)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할 각오를 하십시오. “저 사람 어떻게 저릴 수 있나?” 하지 말고 “그래서 저 사람 곁에는 내가 필요해”라고 마음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연약함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비판’ 또는 ‘격려’입니다.

⑨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할 가족입니다

갈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을 매지 말라”

‘거짓의 종’이 안 되려면 ‘참의 종’이 되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안 되려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자유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⑩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가족입니다

약 5:13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로 책임감이 있어야만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관계를 맺음으로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요, 셋째는 우리 모두가 영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뢰, 고백,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성남: 브니엘, 2006.
-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 2000.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_____. *교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7.
- _____.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 김영한. *포스트모던시대의 세계관*.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09.
- 김은수. *비교종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김재준. *한국의 재래종교와 그리스도, 기독교 사상강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 박정식. *21세기 新교회론 평신도는 없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북, 1999.
-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1996.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4.
- _____.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I*. 서울: 신원문화사, 1983.
- 이문장. *한국인을 위한 성경 연구 원리편*.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3.
- 이병철 편. *구약편 성서원어대전 신학사전(II)*. 서울: 브니엘 출판사, 1988.
- 이신건. *칼 바르트의 교회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이용세. *개인성경연구*.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4.
- _____. *종교 사회학의 이해*. 파주: 나남, 1997.

- _____.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감리교신학대학부출판부, 2002.
- _____.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09.
-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한국 샤머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서울: 집문당, 2002.
- 전성용. *성령론적 조직신학*.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10.
- 조기연. *예배 경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최병두. *도시공동체론*. 서울: 한울, 2003.
- 하용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과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13.
- 한국교회문제연구소 편. *한국교회의 갈 길과 교회문화*. 서울: 여수론, 1996.
- 홍일식.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서울: 정신세계사, 2007.

2. 번역서적

- Banks, Robert J.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9.
- Banks, Robert & Julia.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 Barbieri, Jr., Louis A. *BKC 강해주석 시리즈19 마태복음*. 정민영 역. 서울: 두란노, 1994.
- Barton, Bruce B. 외 2인. *LAB 주석 시리즈 누가복음*. 김진선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3.
- Barton, Bruce B. 외 3인. *LAB 주석 시리즈 로마서*. 박대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 Barton, Bruce B. 외 3인. *LAB 주석 시리즈 마태복음(상)*. 전광규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1.
- Barton, Bruce B. 외 3인. *LAB 주석 시리즈 마태복음(하)*. 전광규, 김진선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 Barton, Bruce B. 외 4인. *LAB 주석 시리즈 마가복음(하)*. 박대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3.
- Beasley-Murray, G. R.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1.

-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101*.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 Caliguire, Jeff. *사도 바울의 리더십 비밀*. 김창영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Cox, Harvey. *세속 도시*. 구덕관 외 5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Fee, Gordon D.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길성남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 Goldsworthy, Graeme.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제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 Grassmick, John D. *BKC 강해주석 시리즈 20 마가복음*. 김도훈 역. 서울: 두란노, 1994.
- Green, Michael.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Hull, Bill. *변혁, 21세기 교회의 생존 전략*. 마영래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1999.
- Hendricks, Howard G.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 Hunt, Josh. Mays, Larry. *왜 내게 배우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가*. 최일희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1999.
- Jackman, David. *왜, 성경인가?*. 김진선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4.
- Kaiser, Jr. Walter C. *성경에 나타난 신앙부흥의 영적 원리들*. 김유배 역. 서울: 나침반사, 1989.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 Labberton, Mark. *제일소명*.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 Ladd, G. E.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Leech, Kenneth. *영성과 목회*. 최승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Lewis, C. S. *영광의 무게*. 홍종락 역. 서울: 흥성사, 2008.
- Martin, Ralph. *초대교회 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9.
- Oden, Thomas C. *목회신학-목회의 본질*.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Peterson, Eugene H. *균형, 그 조용한 목회혁명*.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 Platt, David. *래디컬*.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1.
- Ramm, Bernard. *성경해석학*. 정득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4.
- Reeder, Harry L.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송영일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정진우, 오태균 역. 성남: NCD,

1999.

- Snyder, Howard A.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 _____.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 Sterrett, T. Notton. *성경해석의 원리*. 성서유니온편집부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1978.
- Stevens, Paul.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성오 역. 서울: IVP, 1985.
- Stott, John R. W. *사도행전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1992.
- Wagner, E. Glenn. *하나님의 교회 vs 교회주식회사*.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0.
- Weber, Hans-Ruedi. *성서, 나를 읽는 책*. 연규홍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Weber, Otto.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김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6.
- White, James F.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조기연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 Wilhoit, Jim. Ryken, Leland.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비결*. 최예자 외 2인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1996.

3. 외국서적

- Ascough, Richard S. Cotton, Charles A. *Passionate Visionary*. Peabody: Hendrickson, 2005.
- Nouwen, Henri J. M. *Creative Ministry*. New York: Doubleday, 1978.
- Ridderbos, Herma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John Richard De Witt trans.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 Watson, David. *I Believe in The Church: With Study Guid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8.

Vita of
Chul Hi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Samsong Jungang Evangelical Holiness Church, Goyang

Personal Data:

Birth date: October 3, 1964
 Marital Status: Married to Hi Jung Yoo in September 5,
1992 with one child, Jena
 Home Address: 25 Dongsan-1ro 1gil, Deokyang-Gu, Goyang,
Gyeonggi-Do
 Denomination: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Ordained: April 21, 1998

Education:

B. E.: Inha University, Incheon, 1992
 M. Div.: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ucheon, 1995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9/2009 to present: Senior Pastor
of Samsong Jungang Evangelical Holiness
Church, Goyang
 9/1999 to 8/2008: Assistant Pastor
of Yeockcho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Seoul
 10/1995 to 8/1999: Assistant Pastor
of Dobong Evangelical Holiness Church